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794.01	↑ 코스닥	836.10
	(+13.15)		(+6.19)
↓ 금리 (미국 9년)	3.160	↑ 환율 (원-달러)	1390.60
	(-0.009)		(+2.40)



올 성장률 2.6% 전망... 尹 “소상공인 25조 맞춤형 지원”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출 회복에 성장률 예측치 상향
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 고수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 여전히 커
하반기 취약부문 정책대응 강화
지속가능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6%로, 종전 대비 0.4%포인트(p) 올려 잡았다. 수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진단에 따른 상향조정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의 둔화 흐름을 점진 가운데 국제유가 향방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국내총생산(GDP)·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담았다.

올해 GDP 성장률과 관련해 2.5%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6% 성장을 전망한다”며 기존에 제시한 2.2% 예측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

8.5%에서 9.0%로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상반기 상방압력과 달리, 하반기에는 공급 측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며 2% 초·중반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인 3% 미만(2.6%)을 그대로 봤다. 이어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기상여건 등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용 부문과 관련해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3만 명 늘어날 것이라 예측을 고수했다. 지난해 32만 7000명 증가에 못 미친다.

정부는 오는 2025년도 성장률은 2.2%, 물가상승은 2.1%, 취업자 수는 17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애로 수렴에 기반해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 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정책방향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및 경영부담 완화

정책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핵심경제정책 과제를 함께 제시해 왔다.

역동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약화하는 구조적 원인 개선에 방점을 뒀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자는 것으로, 성장과 사회이동성 간 선순환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로드맵에 제시된 3대 분야 10대 과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및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네트워크 확장) ▲공정한 기회보장(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사회이동성 개선(가계소득 및 자산확충, 핵심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 재기지원 강화)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시세로도 다 팔리네 고분양가 논란에도 수도권 청약 우르르

고분양가 논란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청약 경쟁률에 잠잠해졌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난 부동산 분위기가 청약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됐고, 상급지나 역세권 신축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뜨겁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대장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도 시장에서 무난히 받아주는 것이 확인된 이상 향후 분양 예정 단지들이 분양가를 올려잡는 것은 물론 주변 시세까지 끌어 올릴 수 있어서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이하 마자힐)는 일반분양 250가구를 모집하는데 4만988명이 신청하면서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163대 1이다.

전용면적 59㎡A 타입의 경쟁률이 236대 1로 가장 높았고, 59㎡B와 84㎡A, 84㎡D, 114㎡A, 114㎡B 모두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역시 경쟁률이 58대 1에 달했다. 213가구 모집에 총 1만2535명이 신청했다.

마자힐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5150만원으로 강북에서는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 16억4000만~17억4000만원 선이다. 당초 강북 최고 분양가에 경쟁률이 저조할 것이라 일부 예상과 달리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서는 ‘산성역 헤리스톤(이하 헤리스톤)’ 역시 전 주택형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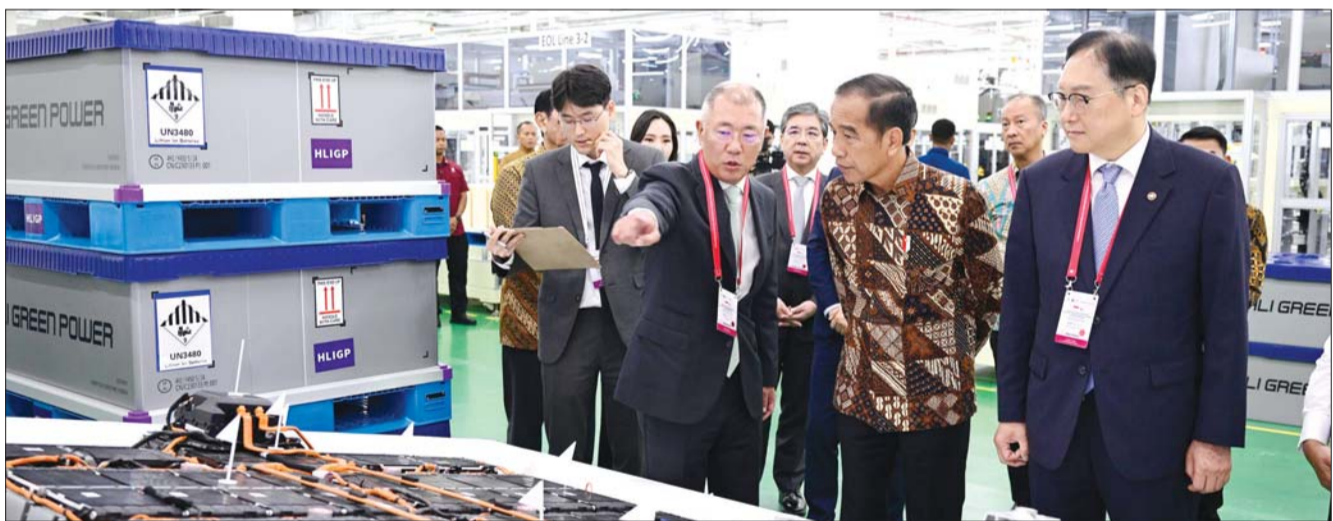
청약홈에 따르면 헤리스톤은 620가구 모집에 1만8952명이 신청해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헤리스톤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3500만원이다. 중층 기준 전용 46㎡이 약 6억3000만원, 59㎡ 약 9억원 등이다. 저층만 남은 74㎡와 84㎡는 각각 10억원, 11억원 선이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시세와 비슷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604세대 배정에 7118건이 접수돼 평균 1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59㎡A 생애최초 유형에는 2935건의 청약이 들어왔다. /안성미 기자 smahn1@

현대차그룹, 인니서 배터리-전기차 원스톱 생산체제 구축

인도네시아 EV생태계 완성 기념식
LG엔솔 합작공장서 배터리셀 생산
‘코나 일렉트릭’에 장착·양산 시작
정의선 “동남아 고객에 새기준 제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일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EV 생태계 완성 기념식에 참석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HLI그린파워에서 생산한 배터리셀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셀-전기차로 이어지는 현지 전기차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뉴시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셀-전기차로 이어지는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해 인구 7억명의 아세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은 3일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한 배터리셀 공장 ‘HLI그린파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EV 생태계 완성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은 HLI그린파워에서 생산한 배터리셀을 장착해 ‘디올 뉴 코나 일렉트릭’ 양산을 시작한다.

정의선 회장은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의 완공과 코나 일렉트릭 양산은 현대차그룹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이룬 협력의 결실이며, 우리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생태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차량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잠재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는 동남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나 일렉트릭은 아이오닉 5에 이어 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에서 생산하는

두번째 전기차 모델이다.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을 탑재해, 가격이 기존 전기차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HLI그린파워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을 배터리 모듈과 팩에 직접 조립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디올 뉴 코나 일렉트릭 1호차에 서명해 의미를 더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

년 울산공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공장 투자협약식에서도 코나 일렉트릭에 기념 서명을 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약 2억 8000만명)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핵심 국가다.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나경원, 민주 ‘윤 탄핵 청문회’ 언급에 “채상병 특검도 윤 무너뜨리기” /사진뉴스
▲ 정부, ‘0월0일 → N번째 월요일’ 휴일 지정 검토

▲ 이재명수사 검사 탄핵... 기각 가능성 높아
▲ 경영계, 내일 최저임금위 8차회의 불참



▲ 국힘, 채상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무산 /사진뉴스
▲ 韓, 안보리 의장국으로 회의 44회 개최... 8개 결의 채택

물가는 잡았는데 ‘환율 폭병’... 한은, 금리인하 선행 복잡

한은,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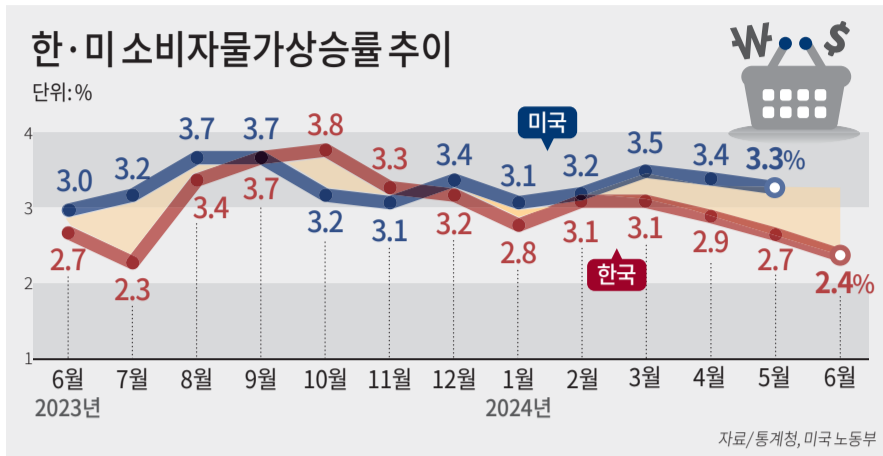
1300원 후반 ‘고환율’ 흐름 지속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도 불확실 부동산 상승·가계부채 증가 등 기준금리인하 논의 ‘변수’ 작용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금리인하를 두고 한국은행의 선택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뒤 지난 5월까지 11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 물가, 3개월째 2%대 둔화 흐름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의 근거가 되는 요인은 물가 둔화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3.84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4월부터 다시 2%대로 둔화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2%대 초반을 기록한 상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에도 꺾이지 않던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까지 3%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부터 2%대로 진입했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

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하지만,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월평균 2.3%에서 2.4%로 변경했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2.4%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잘 확인되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1~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2.8% 수준이다. 다만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만큼 이달부터 금리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 금리인하 ‘변수’

다만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엔 변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수개월째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다. 올해 4월 17일 1395.3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한달 뒤 1349.4원으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7.4원을 기록했다.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포럼에서 “직전(물가) 지표와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물가둔화) 경로를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면서도 “금리를 인하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4년 3%에서 2025년 3.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p다. 연준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달러 환율이 한 단계 더 치솟을 수 있어 우려스럽고, 대선 이후까지 미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하 요인(물가둔화)이 사라져 금리인하 시기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움직임 또한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5월 금융권에서 늘어난 전체 가계대출은 9조 5000억원으로 두 달 연속 오름세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전년대비 농축수산업의 가격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7월부터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존재한다”며 “현재 환율 수준, 미 대선에 따른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연준 인하에 앞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면 ‘현대차그룹, 인니서...’서 계속

“고객 이탈·손익계산법 모호... 금투세, 전면 재검토를”

금감원장-증권사 CEO 간담회 CEO들 “세부적 징수기준 없어 관련 시스템 보완 사실상 곤란해” 개인투자자 “시장위축” 우려 목소리

국내외 주요 증권사 CEO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내년 시행은 실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시행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황선오 금융투자부 부원장보를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내 주요 증권사 14개사, 외국계 증권사 2개사 CEO 등 총 24명이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이복현 금감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증권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토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모아 해결돼야 한다”며 산적인 이슈들을 제시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금투세·배당소득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와 관련된 현안 등이 언급됐다.

주요 증권사 CEO들은 현안 중에서도 특히 ‘금투세 전면 재검토’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이들은 내년 1월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

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을 우려했다.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할 것”이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도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보완을 요구했다.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투세 자체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금투세 도입 시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자본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6만9184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이 소관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5월 같은 주제로 6만5449명을 모은 적도 있지만 해당 청원은 임기 만료 폐기된 이력도 있다.

현행으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0.18%의 거래세만 부과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연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큰 손’들이 증시를 떠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니 전기차 활성화 동남아시아 전체에 경제적인 기회 제공”

현대차그룹은 이번 HLI 그린파워 준공을 통해 인도네시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현지에서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톱티어 브랜드 도약을 위해 EV 라인업을 확대하고 고객 경험과 충전 서비스 강화에 집중한다.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30년에 60만대의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기를 구매할 경우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적용 중인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에서 12%~15%에 달하는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로 현지 부품과 인력 등을 활용해 현지화율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차는 사치세(15%) 면제 및 한시적으로 부가세 10%p 감면 혜택(11% → 1%)을 받는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차량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만대 이상, 총 13만여 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희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자원 순환형 수소 솔루션에서부터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영역을 함께 개척하겠다”며 “우리는 ‘뭉부까 잘란 바루(Membuka jalan baru,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의 정신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산업부,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기지 만든다

2030년 연간 6GW 목표 방안 마련

정부가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구축한다.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발전량을 6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호텔코리아나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강

은 내용을 담은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수요 확대에 발맞춰 원전과 함께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6GW 이상의 도전적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 문

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 추세다.

우선 입지 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기

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를 지원한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 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메가와트(MW)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해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뉴시스

농수산물 등 물가안정 5.6조 투입... 단통법 폐지 재추진

긴급민생안정자금 1조 지원 51개 농산물·원료 할당관세 적용 공공요금 관리강화... 인상 최소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2.6%)를 조정하지 않았다.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 폭의 둔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애둘러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지불보증서)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일류와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특정 품목의 일정 수량에 대해 낮은 세율을 매기게 돼, 수입가격 오름폭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16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과일 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1 물가 안정기조 정착	·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시 소비자 고지 의무 부과	·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2 시민 핵심 생계비 경감	·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 ·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1.7%) 동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 완화 · 경영성자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근로자 수령 성과급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건설투자 등 내수보장

1 건설투자 활성화	· 공공부문 +15조 투자·용자 확대 · 준공지연 요인 해소-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 연내 소진 · 유류·노후 공공청사 활용 청년창업허브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고밀 재개발 →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	
2 내수 활성화	· 내수활성화 입법 재추진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 추진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 완화	

잠재리스크 관리

1 부동산·PF 시장 안정화	·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통해 PF사업장 지원·관리 강화 · PF사업 자기자본 비율·인센티브 차등화 · PF통합정보 시스템 구축해 투명성 강화·관리	
2 가계부채 관리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 초반 수준 관리 ·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9월)	

자료: 정부

/뉴시스 그래픽

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 양과 견고추 1만4000톤(t)을 신규로 비축한다. 김 신규 양식장도 개발(2700ha 규모)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30~50%)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

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계약거래 등 거래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엔 시기 분산·이연 등

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올해부터는 안정적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에 기여한 성과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제품 용량 등 주요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소비자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공개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예상장 대여 등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하반기 긴급민생안정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이자 등 비용부담 경감에 6800억 원, 임금체불 근로자 대상 임금지급·생활안정자금에 28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친 바 있다. 과일값이 급등했던 올해 2~4월 기간에 비해 다소 둔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이승석 책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올해 성장률 회복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민간소비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재부의 진단대로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할뿐더러 고금리 기조 속 가계의 이자부담이 민간소비를 제약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이번 경제전망에서 "가계 이자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등을 들어, 소비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휘발유 값은 17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85.6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8일 저점(1648.27원)을 찍은 뒤 15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반도체 등 기술투자 확대... 대기업 일자리 800만개 만든다

AI법 제정 등 18조 규모 금융지원 최상목 "규제 합리화... 혁신 뒷받침"

정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향후 10년 내 벤처기업 5만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도 80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6위 수준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AI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력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규제로드맵,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양자 기술 R&D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용화를 중장기적으로 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력적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인력양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을 구축한다.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2035년 800만개 이

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 촉진과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해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과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승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과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도 시작한다.

기업 부담이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 개선한다. 또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인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내년 설치해 운영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재추진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며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선진국형 근로시스템 개편

공휴일·급여체계 등 개선

앞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로시스템이 선진국형으로 개선된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매년 공휴일에 편차가 발생하고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속성 있게 쉬지 못하는 일도 검토된다. 선진국처럼 한 달에 급여를 2회 지급하는 등 급여체계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하다 보니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금요일에 근무하다 다시 쉬는 등 휴식에 비효율이 발생했다. 1월1일 설 연휴와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매년 공휴일에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윈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업종별 표준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활용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뉴시스

영세 음식점 배달비·전기료 지원... 정책자금 상환 5년 연장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대한 대출프로그램 요건 대폭 완화 NCB 839 → 919점 이하까지 확대 임대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경감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한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임차료를 낮춘 건물주 등 임대인에게 세제를 지원한다.

20만원의 전기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을 더욱 늘린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나가는 정책자금 가운데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 주요내용

경영 부담 완화	성장 촉진 지원	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3종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 저금리 대한대출 요건 완화 ● 배달·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 인건비 절감 스마트 기술 지원 ● 매출채권 팩토링 우선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진공·중진공 연계해 최대 7억원 정책자금 지원 ● 해외진출·판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소핑몰 입점, 현지화 지원 -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출발자금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조원 → 40조원+θ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교육·직업훈련 수당 지급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사업주에게 1년간 30~60만원 지급 ● 재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철거비 확대 (최대 400만원)

자료/기획재정부

중채무, 신용점수 하락 등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빌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기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도 기존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만 가능하던 것을 업력·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저신용자의 경우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낮춰준다.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한대출 프로그램 요건도 8월부터 완화한다. 신용도는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대출은 대책 발표 시점(7월3일) 이전에 받은 것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유형도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원 이내)까지 포함한다.

이외에 3000만원 한도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현재 NCB 744점 이하에서 NCB 839 이하까지 늘리고, 올해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최

대 6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 플랫폼 기업들과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중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를 새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적용한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 기간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늦춘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재산가액 3→1%) 지원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하던 20만원 지급 대상도 현재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늘려 최대 50만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음식점 등에서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음식점에서 E-9 비자 외국인력을 주방보조원 등으로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역, 업력 요건 등에 따라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을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선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자금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대폭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尹 "현금 나눠주는 '포퓰리즘 형식' 아냐"

'하반기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새출발자금 대상 30만명 추가 지원 대기업 성장위한 단계별 규제 합리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핵심 경제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며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배분하는 포퓰리즘 형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특히 "저금리 대한대출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

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에 드리겠다"며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

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자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

며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서예진 기자 syj@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고양특례시

고양행주산성, 일산호수공원, 북한산, 서소문, 서심릉, 서울릉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함께 미래를 생각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달라도 함께 밀고 당기며
더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를 아끼는 그린에너지,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배터리,
생명을 살리는 바이오 기술,
미래를 오늘로 만드는 Si와 반도체까지

**SK와 파트너들의 원팀 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與 ‘순직해병 특검’ 필리버스터에도 野 “오늘 처리 예정”

野, 본회의서 특검법안 상정
與 연좌농성·필리버스터 돌입
시작 후 24시간 뒤 투표로 종료 가능

거대야당이 채 해병 사건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세를 적극 펼치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입법 지연 전략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해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전날(2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상정하기로 했으나 대정부질문 질의자였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결국,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 일정은 하루 밀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으나,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연좌농

성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고, 특검법안을 대정부질문 전에 상정하면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된다”며 “어제는 대정부질문 말미에 특검법안을 넣었다가 오늘은 왜 대정부질문 앞에 법안을 상정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나씩 화답하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국회의장께 다시 강한 유감과 함께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 상정 전 본회의장에서 “20~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여러분, 왜 헌정사를 새로 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의장이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대립에 있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입장)가 잘못돼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변화하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은,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초월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안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야 말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서 해병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지만, 거대 야당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신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소 태도를 급변해 이 사건에 달라 붙어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를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야당 주도로 종료시킬 수 있는 4일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에 무기한 토론 표결 종료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수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野, 검사 탄핵 발의에 비판 쏟아져... ‘신중론’ 제기

대통령실 “헌정파괴·입법폭력 쿠데타”
與·법조계, 탄핵소추 ‘후방탄용’ 비판
野 “중도층 피로감 느낄 수도 있어
검사들, 기소권·수사권 오남용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역풍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이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4명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절차 돌입 및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 뿐”이라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년 동안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

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 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며 탄핵안이 회부된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상적, 반헌법적, 비합리적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관드는사람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언제든지 국회 청문회에 불러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

시킬 수밖에 없다”며 “탄핵 발의는 수사 기관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의 혐의보다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면 ‘방탄용’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올수록 지지층만 호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당 관계자는 “중도층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을 놔둬야 하느냐”며 “그들의 혐의는 이 전 대표 수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권성동 “野, 김건희 여사가 외압 배후처럼 의혹 확대·재생산”

“기획 중심에 김규현 변호사 의혹
野, 이종호-임성근 친분관계 질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민주당과 특정 언론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외압 의혹 사건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이의 친분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마치 김 여사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임성근 사단장 단독방 제보 공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지금 여의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언론 사이의 ‘정언유착’ 의혹이 파다하다”며 “기획의 중심에 박정호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정치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 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야나고 거듭 질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JTBC는 지난달 25일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도했다. ‘변호사 C씨’는 이종호 씨가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

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다”고 언급된다”며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김 변호사로 추정되는데, 해당 카카오톡 캡처본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김여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단체 대화방 보드를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며 “뒤에서는 제보자 노릇을 하고, 앞에서는 확성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 대화방에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고, 골프 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단체 대화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라면 이는 ‘제보 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라며 “김 변호

사가 단체 대화방 캡처본 제작에 관여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 자료가 활용됐는지, 법사위 청문회 직후 이뤄진 단독보도가 사전 기획된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직전 사전 기획한 ‘김만배-신학림 조작 녹취록’을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제2의 김만배 사건’”이라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언론이 안타까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정쟁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촉구한다”며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단독방 제보공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보험사 고령자 대출잔액 33%… 연체율 높아 건전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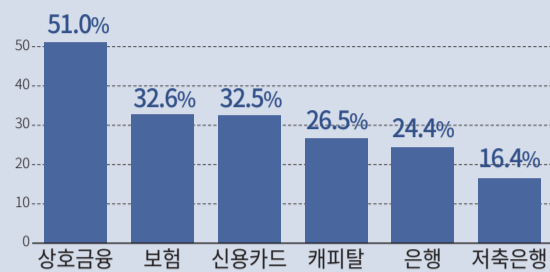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비중 증가
은퇴 후 생활비·창업비 마련 목적
자영업 대출 40%, 생계형 2.71%
연평균 연체율 0.5%로 가장 높아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층의 대출 증가율 및 가계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권 가계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발표 '국내 보험사의 고령층 가계대출 현황 및 과제' 보

금융업권별 60세 이상 차주 대출 비중



자료/한국금융연구원

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업권 60대 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 비중은 32.6%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51%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도 50대 34.1%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지난 10년(2013~2023년) 보험업권의 연평균 대출증가율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7.5%로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높았다.

고령층의 보험업권 가계대출 비중 증

가의 원인으로는 은퇴 후 생활비 마련 등이 꼽힌다. 은퇴를 앞두고거나 은퇴한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퇴직 후 창업 증가,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필요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차입 수요 확대에 기인한 것.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보험업권 대출에서도 60대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은 40.4%, 생계형 대출 비중은 2.71%로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2023년 12월 말 기준 60대 이상의 취약차주 비중은 6.73%로 타 연령 대비 가장 높고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21.9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고령층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고령층의 높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 10년간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업권 연평균 연체율은 0.5%로 가장 높았고 50대 0.42%, 40대 0.4%, 40세 미만 0.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금리 속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했고 고연령 차주의 자산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의 연체위험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인구 고령화로 대출의 늪에 빠진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의 가계대출에서 대출 부실이 건전성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향후 고금리 지속 가능성, 고령층의 높은 가계대출 연체율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고령층의 대출 확대 및 부실 위험 억제를 위해 신용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역모기지론의 활성화, 고령층의 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4세대 실손보험 차등제 본격시행… 보험금 누수 막을까

비급여 이용량 따라 할인·할증
업계 "점유율 미미… 효과 미지수"

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 만큼 실손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차등제 실시로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는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우선 4세대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

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고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150만원 ▲150~300만원 ▲300만원 이상 경우 각각 비급여 보험료가 100%, 200%, 300% 할증된다.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고 할인율은 약 5% 내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고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8조 원으로, 전체 실손 보험금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출시 이후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1년 62%, 2022년 88.8%, 2023년 115.5%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손해율은 134%로 지난해 동기 118.4% 대비 15.6%포인트(p) 급등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의 효과에 대해 회의

적인 반응이다. 4세대 실손보험 점유율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4세대 실손보험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10.5%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해 보험료가 할증될 대상은 4세대 가입자 중 1.3%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른데 상품 측면의 제도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품과 함께 비급여 관리 통제를 수반해 두가지 측면이 맞물려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DL이앤씨 회사채 수요예측서

8050억 접수 '흥행'

재무안정적·다양한 사업 강점 주요

DL이앤씨가 회사채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3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전일 진행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서 총 8050억원 규모의 주문을 접수했다.

당초 2년물 600억원, 3년물 400억원 규모로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각각 5200억원, 2850억원 등 계획 대비 약 8배의 물량이 들어온 것.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 전반의 업황 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리스크 등으로 건설채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DL이앤씨의 회사채 수요예측이 흥행한 것은 이례적이라 평가다.

DL이앤씨는 최근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에서 건설업계 최고 수준인 'AA-(안정적)' 등급을 받아 2019년 이후 6년 연속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의 탁월한 재무안정성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안정적 사업기반 등의 강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시장에서 AA급의 우량 회사채가 희소한 만큼 DL이앤씨의 수요예측이 투자자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지난 2021년 이래 순현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현금 1조2506억원을 보유해 지난해 말 대비 1896억원 증가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조4320억원을 보유 중이다.

차입금 의존도는 13.5%에 불과하며, 부채비율 역시 102.3%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건설업 재무 위기의 단초가 된 PF보증 규모면에서도 DL이앤씨는 2024년 1분기말 별도 기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38.6%에 불과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새마을금고, 하나카드와 손잡고 카드사업 강화

체크카드 고객에 고금리 상품 제공
장기적으로 비이자수익 확대 기대

새마을금고가 카드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업 카드사와 공동마케팅 및 상품 개발 협업을 체결한 데 이어 체크카드 개설 고객에게 고금리 적금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위기를 겪은 만큼 경쟁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새마을금고와 하나카드가 'MG플러스 신용카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입찰을 부치고 하나카드와 손을 잡았다. 양사는 오는 10월 첫 번째 협업상품인 'MG+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남은 3개월간 카드 회원 모집을 위해 영업전 전산을 개발하며 공동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를 중심으로 체크카드 영업을 강화한 바 있다.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고금리 정기적금에 가입시켜줬다. 'MGNEW정기적금'의 우대조건



(왼쪽부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올유닛 체크카드, 더나는 체크카드 플레이트 이미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은 ▲신규고객 ▲공과금자동 이체실적 달성 ▲조합원 가입 등으로 구성했다. 지점별로 금리를 차등 책정했지만 저축은행, 신탁 등 같은 2금융권과 비교하면 최대 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경북 구미시에 있는 '임오새마을금고 본점'이다. 연 8% 금리를 지급한다. 이어 고흥새마을금고 대서지점과 대성새마을금고본점이 각각 연 7%, 연 5.50% 금리를 적용했다. 서울에서 금리를 가장 높게 책정한 곳은 성북구에 있

는 '새중앙새마을금고 제1지점(연 4.60%)'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그간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과 조합원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상품문의가 꾸준히 등장했다"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는 혜택 측면에서도 전업 카드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가 카드부문 사업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금융 서비스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시중은행 수준의 총자산을 가진 금융회사인 만큼 체급에 걸맞

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총 자산은 287조원이다. 같은 상호금융회사인 신탁중앙회보다 138조원 더 많다. 금융권에서는 체급만 놓고 보면 시중은행과 견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직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 형태로만 신용카드 출사가 가능하다. 전업 카드사가 라이선스가 없는 만큼 자체 신용카드는 설계할 수 없다. 단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연체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만큼 경기완화와 시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낮다.

장기적으로 비이자수익 확대도 노려볼 수 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증가하면서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 위기를 겪었던 만큼 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수수료수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서비스 제고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그간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대리로 판매했지만 PLCC로 자체 상품을 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롯데바이오, 송도시대 첫 삽... “CDMO 글로벌 톱10 도약”

송도바이오캠퍼스 1공장 착공식
2030년까지 3개 플랜트 건설
신동빈 “세계 주도권 선점 총력”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일영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강경성 산업자원통상자원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현재 ‘바이오엔젤릭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뉴라이프 플랫폼’ 등 4대 주제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이 중 바이오엔젤릭스 부분의 핵심 사업이다.

이날 착공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송도에서 시작하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여정은, 롯데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대한민국이 세계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 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 착공식에서 (왼쪽부터)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정일영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경성 산업자원통상자원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시삽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인천 송도 11공구 KI20 블록에 3개의 바이오 플랜트를 건설해 총 36만 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1·2·3공장을 각각 2025년, 2027년, 2030년 준공할 계획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4년 전체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송도 1·2·3공장은 각 공장마다 12만L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까지 더해지면 2034년 기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역량은 40만L에 달하게 된다.

최근 창립 2주년을 맞이한 롯데바이

오로직스는 그동안 ‘인수’와 ‘설립’이라는 두 트랙 전략을 펼쳐 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12월 미국 뉴욕 동부 시러큐스에 위치한 BMS 공장을 인수해 바이오의약품 CDMO 시설로 전환했다.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는 항체약물 접합체(ADC)를 생산하는 설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게 된다.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를 통해 회사 창립 8개월 만에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에 진입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 캠퍼스 1공장 건설을 시작함으로써 CDMO 사업을 본격화했다.

특히 1공장에는 고역가 의약품 생산을 위한 ‘다이트플렉스 퀴드 시스템’이 추가로 마련된다. 이는 3000L 바이오리액터를 총 8대 설치하는 것이다. 이중 유형으로 4세트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설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고농도 제품을 배양·정제할 수 있는 맞춤형 배양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세포 배양 공정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폐물은 제거하고 영양분은 공급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엔마이네스 윈 퍼퓨전’도 도입된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원가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송도 메가 플랜

트와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의 협업도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벤처 이니셔티브가 입주 업체의 송도 유입을 일으켜 송도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대한 접근성, 수도권 인프라,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등 여러 이점을 지닌 송도 국제도시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중장기 계획 실현에 적합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분석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전자,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 인수

지분 80% 확보, 향후 100% 인수
정기현 부사장 “시흥 사업 본격화”

LG전자가 스마트홈 분야 선도기업 ‘앳홈’을 인수했다.

LG전자가 가정 내 가전제품과 센서·조명 등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연결하는 스마트홈 분야 선도기업을 인수한다.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에 수많은 기기 연결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LG전자는 최근 네덜란드 엔스헤데(Enschede)에 본사를 둔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Athom)’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20%도 향후 3년 내 인수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스마트홈 생태계와 생성형AI를 결합한 ‘AI홈’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을 이해하고 최적의 공간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특히 AI홈 구현에 필요한 ‘확장성’을 단숨에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앳홈은 지난 2014년 설립 이래 자체 개발한 허브와 운영체제(OS)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스마트홈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2023년에는 미국, 캐나다까지 진출했다.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인 ‘호미 프로(Homey Pro)’는 5만여종의 가전 및 IoT기기를 연결한다. 와이파이



LG전자가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Athom)사를 인수해 개방형 스마트홈 생태계와 폭넓은 가전 및 IoT기기 연결성을 확보했다. 사진은 시흥에서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스마트커피, 스마트조명 등 다양한 가전과 IoT기기가 연결된 모습. /LG전자

(wi-fi), 블루투스(Bluetooth), 지웨이브(Z-Wave), 매터(Matter), 쓰레드(Thread) 등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해 개방성이 높다.

LG전자는 또 앳홈 인수로 타사 기기와 서비스까지 통합할 수 있어, 더 많은 고객 사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LG전자는 인수 후에도 앳홈의 운영체제와 브랜드는 독립적으로 유지한다. 사업 및 연구개발 역량이나 플랫폼 관점의 시너지를 도모하면서도 앳홈의 성장동력과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LG전자 정기현 플랫폼사업센터 부사장은 “앳홈 인수는 AI홈 사업의 초석”이라며 “앳홈 특유의 개방형 생태계와 연결성을 바탕으로 외부 연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AI가전과 시너지를 통해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하

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은 2023년 812억800만달러에서 2028년 2602억3500만달러(361조원)로 연평균 26.23% 성장할 전망이다.

LG전자는 제조기업을 넘어 수많은 기기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AI홈을 궁극적으로 상업공간이나 모빌리티 같은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조주완 LG전자-CEO(최고경영자)는 “LG전자는 고객의 삶이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인텔리전트 스페이스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등 주력사업 호조

글로벌 승용차 타이어 수요 증가
증권사, 향후 2년간 실적개선 전망

HS효성의 효성첨단소재의 실적상승이 기대된다. 효성첨단소재의 주력사업인 타이어코드와 탄소섬유 부문의 업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의 주력 제품인 타이어코드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효성첨단소재의 산업소재 부문은 타이어코드, 스틸코드, 탄소섬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장 가동률도 상승세를 띄고 있다. 지난 2022년 1분기 공장 가동률은 92.72%로 집계됐다. 이후 2022년 연간 가동률은 88.82%, 2023년 81.98%로 줄었으나 올해 1분기 공장 가동률은 88.5%까지 늘었다.

증권사에서는 효성첨단소재가 향후 2년간 실적 성장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868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하며, 영업이익도 7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해 1분기에 이어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71.7% 늘어난 2961억원으로 예측된다.

전방 타이어 수요도 올해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승용차 타이어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유럽을 중심으로 OE(신차용)타이어 수요가 회복한 데 이어 글로벌 교체용 타이어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또한 전방시장 수요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구환신은 구형 자동차 등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코드 수출 가격도 상승 전환했다. 타이어코드 가격은 최근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 2분기 전 분기 대비 3% 상승했다. 6월 가격은 올해 초보다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사는 탄소섬유를 앞세워 신소재 시장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은 향후 연 10~20% 이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섬유 관가 역시 2분기에 반등세를 보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판가는 올 1분기 하락을 지속했으나 올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2.4% 상승했다. 지난해 중국의 탄소섬유 증설 이후 가격 하락이 지속됐으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는 지난 2023년 연간 9000톤이 생산됐다. 오는 2028년까지 2만4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베트남에 법인(Hyosung Vina Core Materials Co. Ltd)을 세우고 528억원을 투자하는 등 증설 작업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서현정 기자



루카 델피노 마세라티 최고사업책임자(CCO·왼쪽부터), 다비데 그라스 마세라티 최고경영자(CEO), 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책임자.

이탈리아 ‘마세라티’ 韓 공식 출범 “고성능·럭셔리로 고객 니즈 충족”

마세라티 코리아 새 시대 서막 행사 직진출 형식... 韓 시장 점유율 확대 뉴 그란투리스모 등 신차 2종 공개 업계 “韓·日 겸직 대표 선임 아쉬움”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가 한국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그동안 마세라티는 국내 내시장에서는 공식 법인 없이 딜러사를 통해 차량을 수입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직진출하는 형식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 럭셔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영국 정통 럭셔리 브랜드 애스턴 마틴 등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마세라티 코리아는 3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마세라티 코리아: 새 시대의 서막’ 행사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마세라티 코리아는 포르차모터스코리아(FMK)의 국내 총판 계약을 종료하고 모회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 사업부에서 새출발한다. 수장은 기무라 다카유키 아태지역 총괄대표가 겸임한다. 총판 계약이 완료된 FMK는 마세라티 딜러사를 맡게 된다.

마세라티가 한국 시장 직진출을 결정한 이유는 판매량 부진이 가장 크다. 실제 페라리, 람보르기니와 함께 이탈리아 3대 명차 브랜드로 불리는 마세라

티는 국내 시장에서도 한때 수많은 소비자들의 ‘드림카’로 꼽혀왔지만, 최근 5년 사이 판매량이 급감했다.

마세라티는 준대형 세단 ‘기블리’·준대형 SUV ‘르반떼’ 인기에 힘입어 지난 2018년 연간 1660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2020년부터 1000대를 밑돌고 있다. 2020년에는 연간 판매량 932대, 2021년 842대, 2022년 554대, 지난해 434대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55대 판매하는데 그쳤다.

마세라티는 이달 한국 법인 출범을 시작으로 이날 공개한 신차 2종 ‘뉴 그란투리스모’와 ‘뉴 그란카브리오’로 반등에 나선다.

뉴 그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성능, 고급스러운 디자인, 안락한 승차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2도어 스포츠카 쿠페다. 뉴 그란카브리오는 뉴 그란투리스모를 기반으로 제작된 4인승 컨버터블 모델이다.

뉴 그란투리스모 ‘모데나’ 트림은 최고 출력 490ps 및 최대 토크 600Nm를 발휘하며, 뉴 그란투리스모 ‘트로페오’와 뉴 그란카브리오 트로페오는 최고 출력 550ps, 최대 토크 650Nm의 성능을 자랑한다. 또 올 연말에는 마세라티 글로벌 전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100% 전기로 구동하는 풀그레 라인업도 국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AS 서비스 등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루카 델피노 마세라티 CCO는 “한국 시장은 럭셔리 감성과 이탈리아 장인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춰 마세라티의 혁신적인 제품을 접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독일, 중국 등에 이어 다섯번째로 큰 시장인 만큼 현지 시장에서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럭셔리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입차 업계에서는 마세라티가 직진출로 판매량을 확대하는 건 쉽지 않다는 시각이 높다.

우선 마세라티가 기블리 등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드림카’라는 이미지가 사라졌다. 또 수입차 시장도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볼보 등을 제외하면 모두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여기에 마세라티 코리아 수장을 기무라 다카유키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일본 대표가 한국 대표를 겸직하는 것이다. 토요타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인을 수장으로 선임해 현지화 전략에 집중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며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에 최적화된 수장을 임명하는 것과 달리 일본과 한국을 겸직하는 대표를 수장으로 선임했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휴가철 ‘카니발·싼타페 SUV’ 대세

엔카닷컴, 이달 중고차 시세 조사 국산·수입차 지난달比 0.68% 하락

카니발과 싼타페 등 국산 SUV가 휴가 시즌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3일 엔카닷컴에 따르면 2024년 7월 중고차 시세를 조사한 결과 국산차와 수입차 대표 모델의 전체 평균 시세가 지난 달 대비 0.6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된 중고차는 2021년식 인기 차종으로 주행거리 기준은 6만km이며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국산차 전체 평균 시세는 지난 달 대비 1.52% 하락했다. 이 중 SUV 및 RV 모델이 전반적으로 다른 차종보다 시세 하락폭이 커 휴가 시즌을 위해 SUV 구매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은 국내 브

랜드를 추천했다.

대표 패밀리 RV로 인기가 높은 기아 카니발 4세대 9인승 프레스티지는 2.87% 하락했으며, 스포티지 5세대 2.02WD 노블레스는 2.81%, 쏘렌토 4세대 HEV 1.6 2WD 그레비티는 2.48% 시세가 하락했다.

제네시스 SUV 모델인 GV70 2.5T AWD, GV80 2.5T AWD도 각각 2.29%, 2.18% 하락했다. 현대 더 뉴 싼타페 2.2 2WD 프레스티지는 2.88% 하락했고, 팰리세이드 2.2 2WD 프레스티지는 0.82% 하락해 상대적으로 감가 폭이 작았다. 이 외에도 KG모빌리티 베리 뉴 티볼리 1.5 2WD V3은 2.91% 떨어졌다.

수입차의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0.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 /기아

37% 상승했다. 일부 모델을 제외한 대부분 모델의 시세가 상승한 가운데 준대형 SUV를 중심으로 시세 상승이 두드러졌다.

BMW X5 (G05) xDrive 30d xLine은 2.95%, 볼보 XC90 2세대 B6 인스 크립션은 2.81%, 벤츠 GLE-클래스 W167 GLE300d 4MATIC은 2.04% 전월 대비 상승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구글’ 파트너십에 AI 반독점법 조사 물망

EU, 삼성-구글 반경쟁적 효과 검토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행위 차단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미국과 EU 등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삼성전자와 구글의 AI 파트너십에 대해 반독점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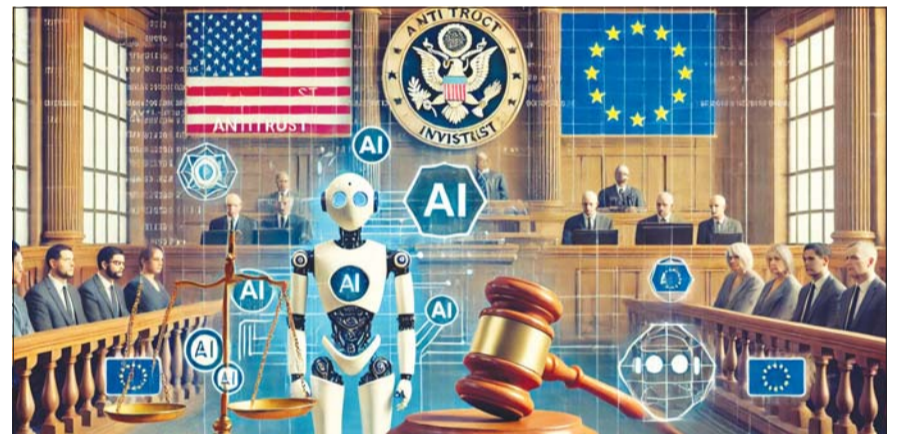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자사 AI 기기에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니 나노(Gemini Nano)’를 탑재하면서 다른 AI 기업의 시장 진입을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해 EU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게이트키퍼 기업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촉발되었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 주요 반독점 조사 기관들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 특히 일부 기업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며 반독점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AI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까지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기업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경쟁 당국이 지난해 9월 엔비디아(NVIDIA) GPU 부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곧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반독점법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엔비디아의 지난해 매출은 609억 달러(약 84조 5657억 원)였다.

프랑스 경쟁 당국이 주목한 지점은 글로벌 ICT 업계의 AI 개발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쿠다(CUDA)’에 대해 압도적인 의존도를 갖고 있다는 점과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CoreWeave)에 대한 엔비디아 투자가 AI 기술에 대한 독점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한 반독점법 조사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 또한 조사 대상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DALL-E 생성 이미지

LGU+ “AI 사용패턴 분석해 요금제 추천”

‘익시 통신 플래너’ 도입

LG유플러스가 고객의 사용 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요금제·혜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공식 홈페이지 ‘유플러스닷컴’과 고객센터 앱 ‘당신의U+’에 ‘익시 통신 플래너’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익시 통신 플래너는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를 활용한 서비스로 ▲사용 중인 요금제 진단 ▲고객 맞춤형 요금제 추천 ▲혜택 추천 및 관리 등을

제공한다.

먼저 데이터, 멤버십, 관심사, 할인, 사용기간 등 5가지 속성을 바탕으로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가입 요금제가 최적인지 판단하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맞춤 요금제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멤버십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게는 VIP 멤버십 승급이 가능한 요금제를 추천하거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선호도가 높은 고객에게는 OTT 요금제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T “무료 커피·골프레슨·그랩 할인까지”

7월 멤버십 ‘달·달·혜택’ 확대

KT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멤버십 혜택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KT는 멤버십 ‘달·달·혜택’을 통해 캐나다커피 체인 ‘팀홀튼’의 무료 커피(달달 초이스), 동남아시아 최대 교통배달앱 ‘그랩’ 할인(달달스페셜), 복합

골프 문화공간 ‘백야드’의 무료 레슨(달달 찬스) 등을 새롭게 선보였다.

또, 원하는 혜택을 골라서 하나를 받을 수 있는 ‘달달초이스’는 노브랜드 버거,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배달의민족x순살만골격, GS더프resi, 도미노피자, 롯데시네마, 이니스프리, 팔각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 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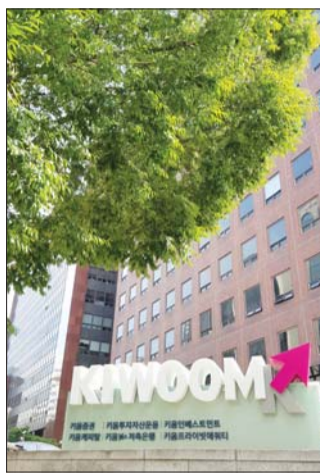
증권사, 조직개편·인재영입 통해 리테일 부문 ‘힘 신기’

키움증권, WM 산하 플랫폼본부 신설 하이투자증권, 조직 슬림화 실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 조직 IBK투자증권, 디지털혁신본부장 선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대체투자 및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실적 악화 속에 인재 영입 등 조직 개편을 통해 리테일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리테일 강자인 키움증권은 지난 1일 자산관리(WM) 부문 산하 플랫폼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등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UX·User Experience)과 사용자 환경(UI·UI·User Interface)을 개선, 선두 주자의 입지를 다져 나간다는 전략이다.

하이투자증권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



키움증권 사옥 전경.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전경. /하이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전경.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본사. /IBK투자증권

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슬림화에 나서는 한편 부동산 PF 위기관리와 리테일 부문을 강화하는 차원의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리테일총괄의 영업지원실을 영업기획실로 변경하고 산하에 대출중개 등 시너지 영업을 담당하는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했다. 또한 상품전략부와 연금지원부는 상품연금부로 통합하고 산하에 연금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점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센터 내 영업점은 폐지하고, 강북WM 센터를 서울금융센터로 변경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자산관리총괄’ 조직을 신설했다. 증권, 은행의 개인자산관리(PWM)와 증권 자산관리 비즈니스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증권 고객뿐 아니라 은행 고객에게도 차별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1일 디지털 전환(DT) 부문 디지털혁신본부장으로 정병운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정 상무는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카카오페이증권 부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MTS 전면 개편에 착수한 IBK투자증권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리테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증권사들은 상반기 밸류업 프로그램, AI 반도체 열풍 등으로 국내외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만큼 하반기에도 리테일 부문을 강화, 수익을 다변화하는 데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증권에 따르면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 삼성·미래에셋·NH투자·한국·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분기 합산 순이익이 1조178억원을 기록, 시장 컨센서스를 16.2%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올해도 투자는 행(IB) 부문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리테일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면서 “증권사들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리테일 사업 부문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증권사 종목 리포트, 대형주 ‘쏠림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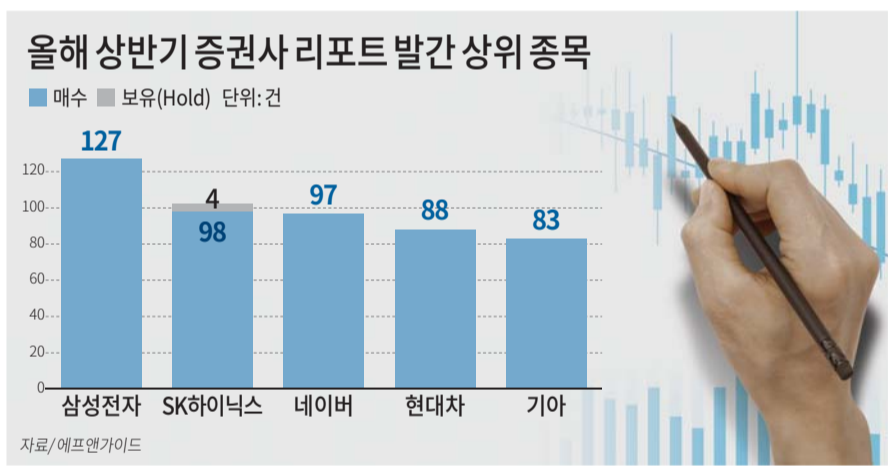
상장사 중 65% 정보 제공 안 돼 발간 상위 5개 종목, 전체 6.73% 해당 리포트 중 ‘매도’는 0개

올해 상반기 발간된 증권사들의 종목 리포트가 대형주로 쏠림과 동시에 ‘매도’는 단 2건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의 편향된 종목 리포트 흐름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발간한 삼성전자 리포트 총 127건의 투자 의견이 모두 ‘매수’로 집계됐다. 총 102건이 나온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98건이 매수였지만, 4건은 ‘보유’(Hold)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은 ‘10만전자’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8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리포트를 한 번이라도 발간한 상장사는 총 934곳으로, 전체 상장사 2703곳 중 34.55%에 불과했다. 이 중 코스피는 380곳, 코스닥은 554곳으로 리포트가 전무한 상장사는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45.13%, 31.87%씩인 셈이다. 사실상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60% 이상의 투자 관련 기업 정보·평가 등이 제공되지 않는 셈이다.

그마저도 대형주에 편중됐다는 지적



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 리포트 발간 상위 5개 종목인 삼성전자(127건), SK하이닉스(102건), 네이버(97건), 현대차(88건), 기아(83건)의 리포트 총합은 497개이다. 단 5개 종목이 코스피 종목에서 나온 리포트 737개 중 6.73%를 차지한다. 게다가 해당 리포트 중 ‘매도’ 리포트는 0개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들의 주 고객인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유니버스를 형성할 때 좋은 기업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0년 1575명이었던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수는 지난해 1082명으로 31.3% 줄어 들었다.

이렇듯 ‘깜깜이 투자’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되는 모습은 미흡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발행된 기업 보고서 8662건 중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한 경우는 2건(0.02%)이며, 사실상 매도로 해석되는 ‘비중 축소’도 4건(0.05%)에 그쳤다. 반면, ‘매수’ 의견은 8012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유’는 636건(7.34%), ‘강력매수’는 8건(0.09%)으로 집계됐다. 공격적 성향을 지닌 투자 의견인 ‘강력매수’ 의견이 ‘매도’와 ‘비중 축소’의 합보다 많은 것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 A씨는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도 폭에 테러 수준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애널리스트 의견을 의견으로만 받아들이는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7兆 돌파

전년비 5148억 늘어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7조원을 돌파했다.

3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

금은 7조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8억원(7.92%) 증가했다. 특히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성장세를 보였다. NH투자증권 DC형과 IRP 적립금은 3조7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편리한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고객관리 강화 전략이 유효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퇴직연금 고객관리를 강화해 왔다. 퇴직연금 계좌개설, 상품투자, 자산관리, 연금수령 전 단계를 퇴직연금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한투운용 ‘美빅테크7+ 15% ETF’ 순매수세

순자산액 1058억 기록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연간 분배율 15%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상품이다. 해당 ETF는 지난 4월 2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약 2개월 만인 지난 2일 순자산액 105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순자산액 증가 배경으로 개인투자자 순매수세를 꼽았다. 개인투자자들은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가 상장한 이후 733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1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의 순매수세는 높은 분배율을 추구하는 상품 특징 덕분에 풀이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해

당 ETF의 우수한 성과를 강조했다.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는 최근 1개월 기준 10.9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 23개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성과 기반으로는 ‘미스매칭 전략’을 언급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초지수(Bloomberg US Big Tech Top 7 Plus Premium Decrement 15% Distribution Index)와 옵션 프리미엄 수취가 용이한 나스닥100DTE 옵션을 활용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을 추종하는 기초지수 성과가 나스닥 성과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인 셈이다. OTM 1% 옵션을 활용해 프리미엄 외에 시장 성과를 일정 부분 추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 본부장은 “우수한 성과와 연간 목표 분배율 15%를 꾸준히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한국형TDF2050, 5년 수익률 63%”

삼성자산운용, 생애주기별 스타일 배분

삼성자산운용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삼성한국형 2050(UH)의 5년 수익률이 63%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TDF는 대표적인 연금 투자 상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은퇴 시점에 맞춰 성장자산과 안정자산의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해 준다. 삼성한국형TDF2050(UH)는 전세계 90여 개국, 1800여 개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한다. 또한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자산 비중만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TDF와는 달리, 생애주기별 스타일 배분을 적용한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TDF 전략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투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장기 성과를 시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년 수익률과 1년 수익률도 각각 27%, 19.8%를 기록했다.

신재광 삼성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 본부 상무는 “삼성자산운용은 고객의 다양한 성향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업계 최다 TDF시리즈를 운용 중”이라며 “대표적인 은퇴플랜 상품인 TDF를 통해 고객의 은퇴 이후 재정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AI 발전, 지구 달군다”... MS·구글, 탄소배출 증가 ‘인정’

구글 알파벳, 작년 배출량 1430t
5년전 비 48%, 2년전 비 13% ↑
“2030년 탈탄소 목표달성 어려워”
MS, 탄소배출 4년전 비 30% 늘어
“작년 AI개발 붐... 전력수요 급증
ICT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모습. 2022년 11월 챗GPT가 공개된 후 AI 개발 경쟁을 맞이한 빅테크 기업들이 2023년 자사가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며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고 시인했다. /PEXEL

전세계에 다친 기후 위기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시급하지만, 첨단 ICT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오히려 탄소배출량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지난 5월 MS(Microsoft)가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급증가를 인정해 데 이어 구글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3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 및 발전이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환경보고서를 공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 계열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1430만 톤(t)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보다 48%, 2022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전세계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4.5톤으로, 317만 명의 연간 배출량과 동일하다.

구글은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을

제품에 상용화 하면서 AI 컴퓨팅의 강도가 높아져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 인프라 투자가 예상대로 증가하며 탄소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해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5월에는 MS가 지속가능보고서를 내고 AI 개발과 발전으로 인해 자사의 탄소배출량이 2020년 대비 지난해 30% 늘었다고 밝혔다. M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90만 톤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310만 톤(감축 목표 1070만 톤)으로 늘어난 후 후 2022년

1280만 톤(950만 톤)으로 2.29% 다소 감소했지만 이듬해 20%가 늘어 1540만 톤(830만 톤)을 기록했다. 감축 목표의 2배 수준에 달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2020년 MS는 ‘탄소 문샷(Carbone Moonshot)’을 공개했지만 이는 AI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기 전”이라며 “AI 기술의 확장 그와 따른 전기적 수요는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설명했다. MS의 탄소 문샷 계획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2050년 회사 운영 중 완전한 탄소 미배출을 목표로 한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데이터센터 운영 및 고성능 컴퓨팅 과정에서 나타난다. 지난 1월 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세계 데이터센터의 최종 전력 수요 비중은 2%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AI 개발 붐이 일어난 2023년을 기점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2030년 전세계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연간 전력 소모량은 전체 전력 소모량의 최소 7% 이상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형 데이터센터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량은 연간 25GWh(기가와트시)로 2만 4000명이 연간 소모하는 전력량과 같다. 그러나 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매년 20~40%씩 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IPCC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아직 AI가 개발 단계인 점에서 더욱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I의 상용화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EA가 추정하는 오픈AI 챗GPT의 연간 필요 전력은 10TWh에 달하는데, 오픈AI가 아직 멀티모달(MultiModal) AI로써 대중에 활용되기 보단 프롬프트 중심의 채팅형 AI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다. 10TWh는 4인으로 구성된 100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모량과 맞먹는다.

반면 심각한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일부 IT 업계 인사들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는 최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AI가 에너지 전환을 돕는 만큼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며 “AI의 전 세계 전기 사용량과 관련해 현재는 2%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언젠가는 6% 정도 쓸 수 있겠지만 10% 이상 쓸 것이라는 전망은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정통한 IT 관계자는 “기본적인 전력소모 외에도 발생한 열을 식히는 과정까지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등 첨단 ICT 기술은 결국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초다량 배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등 기기 자체 내에서 고성능 연산이 가능해진다면 새로운 변이점을 맞이할 수 있다”면서도 “우려스러운 점은 혁신적인 형태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센터를 재설계하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을 기업이 선택할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현대차·제네시스, 2024 레드 닷 어워드 상 휩쓸어

디자인 콘셉트 부문 분상 4개 수상
자율주행 분야 DICE·SPACE 분상

현대자동차·제네시스가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인 ‘레드 닷 어워드’에서 혁신적인 콘셉트 디자인으로 세계적 권위의 상을 수상하며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경쟁력을 증명했다.

현대차·제네시스는 3일 ‘2024 레드 닷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총 4개의 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레드 닷 어워드는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으로 나눠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이 중 디자인 콘셉트 부문은 콘셉트, 프로토타입, 출시 전 제품 디자인 등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2024 레드 닷 어워드 분상 SPACE.

현대차는 지난 CES 2024에서 최초로 선보인 수소 기반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인 DICE와 SPACE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분상을 수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DICE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자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

인 맞춤형 모빌리티로, 차별화된 AI 기반 자율주행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 DICE는 현대차 고유의 수직 아치형 디자인을 적용해 사용자에게 개방감과 이능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탑승객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공하는 공공 모빌리티 SPACE는 탑승객 개

개인에 최적화된 공간과 맞춤형 시트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타페 XRT 콘셉트는 ‘수송 디자인’ 분야에서 분상을 수상했다. 신타페 XRT 콘셉트는 5세대 신타페를 기반으로 오프로드의 험준한 지형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디자인됐다. 루프 랙 위 화물 캐리어, 테일게이트에 부착한 사다리 및 카고 박스 등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다양한 사양들이 대거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수송 디자인’ 분야에서 초대형 전동화 SUV ‘네오론 콘셉트(N EOLUN·이하 네오론)’로 분상을 수상했다. 네오론은 ‘단순함 속의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과 혁신을 동시에 강조하며 제네시스만의 미래 지향적 가치를 보여준다. /양성운 기자 ysw@

아시아나항공 유럽·日 등 국제노선 항공편 주 82회 확대

아시아나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제선 노선 확대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이 유럽과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22개 노선에서 항공편을 주 82회 늘린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은 인천-뉴욕 노선 야간편 운항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5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하여 운항한다. 유럽은 7월 1일부터 인천-로마 노선을 주 5회에서 7회로 2회 증편, 9월 1일부터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을 주 3회에서 4회로 1회 증편, 지난 달부터 주 1회 부정기 운항을 재개한 인천-베네치아 노선은 10월 10일까지 운항을 이어간다. 호주는 인천-멜버른 노선을 7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 4회로 운항 재개한다.

일본은 나리타 노선을 7월 1일부터 주 28회 운항하고 오사카 노선을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주 21회에서 23회로 증편, 오키나와 노선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 7회에서 최대 주 13회까지 증편한다. 또 후라노, 비에이, 소운교 등의 관광지로 유명한 홋카이도 제 2의 도시 아사히카와 노선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2회 부정기 운항하고, 삿포로 노선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7회에서 주 9회로 증편한다.

중국은 7월 1일부터 창춘 노선을 주 4회에서 9회, 청두 노선을 주 4회로 운항 재개 및 8월 12일부터 주 7회, 하얼빈 노선은 주 4회에서 7회로 증편 운항하며, 6월 11일부터 주 11회에서 14회로 증편한 광저우 노선은 10월 26일까지 증편을 유지한다. /양성운 기자

한화시스템, 초분광 위성사업 405억 수주

2028년 까지 위성 5기 개발·공급

한화시스템이 온실가스 관측이 가능한 초분광 위성 사업에 새롭게 진출한다.

한화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405억원으로 2028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개발해 공

급할 계획이다. 초분광은 파장 차이에 따라 빛을 나누는 기술이며 이를 활용하면 아주 먼 거리의 피사체까지 세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초분광 영상 기술은 현재 ▲대기 및 토양의 오염·비오염 판별 ▲가뭄 및 홍수 등 재해 탐지·분석 ▲농작물 작황 정보 제공·분석 ▲산림 병충해 여부 식별 ▲지표 특성 분석 기능을 이용

한 자원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이번에 개발할 위성은 고도 600km 이하 저궤도를 돌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산출하고 분포를 측정해 과다 배출 우려 지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화시스템이 초분광 위성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 수주로 한화시스템은 EO·IR·SAR·초분광 등 지구관측위성 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

이 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위성을 통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향후 온실가스 최대 발생 및 피해국을 대상으로 위성체 및 영상 데이터 수출·판매 등 추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 이외 다른 온실가스 물질에 대해서도 관측이 가능한 초분광 위성 또한 개발할 예정이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ids@

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매달 광고비만 100만원 ‘훌쩍’

중기중앙회, 1103개社 대상 조사
숙박·배달앱 각각 108만·107만원
평균 판매수수료율, 쇼핑몰 14.3%
추 본부장 “플랫폼 시장 규율 필요”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플랫폼사에 매달 평균 100만원이 넘는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입점업체들이 가장 많이 개선을 원하는 분야 역시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였다.

이들 업체 3곳 중 2곳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 등을 규율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해 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대상 입점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

배달앱 입점사 광고종류수·구매건수·광고비 (base:전체, n=300, 단위:%)

구분	사례수	월평균 광고 종류 수(개)	월평균 광고 구매 건수(건)	월평균 총 광고비(원)
전체	(300)	0.6	0.9	107,780
연 매출액	2억 미만	(100)	0.7	113,260
	2~5억 미만	(110)	0.5	103,636
	5억 이상	(90)	0.6	106,756
배달앱 거래 기간	3년 미만	(89)	0.3	52,270
	3~5년 미만	(122)	0.6	98,508
	5년이상	(89)	1.0	176,000
주거래 배달앱	배달의 민족	(110)	1.5	220,764
	쿠팡이츠	(90)	0.02	3,333
	요기요	(100)	0.2	77,500

가, SSG닷컴, 무신사,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숙박앱은 야놀자, 여기어때가 두루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 쇼핑몰이 120만7263원, 숙박앱이 107만9300원, 배달앱이 107만78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매달 평균 노출 광고비로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25만7100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중개거래 품목 기준)은 온라인 쇼핑몰이 14.3%, 숙박앱이 11.5%였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는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무신사가 27.8%로 SSG닷컴(18.8%), 11번가(12.5%), 쿠팡(12.3%) 등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네이버는 6.3%였다.

중개거래(위수탁거래) 비중은 네이버가 100%로 가장 높았고, 무신사도 99%에 달했다. 쿠팡은 50.7%였다. 반면 플랫폼사가 직접 구매하는 직매입 비중은 쿠팡이 55.3%로 가장 높았다. 네이버는 전무했고 무신사는 1%에 그쳤다.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입점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평균 27.2%로 조사됐다. 물류비는

판매 대비 5.7% 수준이었다.

숙박앱은 최고 17%, 최저 8%의 예약(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수료는 야놀자(11.7%)와 여기어때(11.4%)가 비슷했다.

다만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입점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선 절반 가까이 ‘변화없다’고 답했다. ‘변화없다’는 답변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였다.

거래 비용이 ‘줄었다’는 플랫폼은 ▲배달앱(33.3%) ▲온라인 쇼핑몰(22.4%) ▲숙박앱(21%) 순이었고, ‘늘었다’는 ▲숙박앱(24.5%) ▲온라인 쇼핑몰(22.2%), 배달앱(21%) 순이었다.

지난해 플랫폼과 거래시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 쇼핑몰(5.1%) 순으로 많았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선 ‘상품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선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선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 온라인쇼핑몰(65%), 배달앱(61.3%) 순으로 많았다.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정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휴앤쇼핑 협업 스타트업 3곳 추가 육성

휴앤쇼핑이 스타트업 추가 육성에 나섰다. 휴앤쇼핑은 ‘2024 휴앤쇼핑 x 서울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협업할 스타트업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패션(라이프스타일), 방송·콘텐츠, ICT&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서 진행한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서 혁신적 기술과 사업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3개사가 서류심사와 방문심사, 대면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미타운(3D 이미지 모델링) ▲제트에이아이(AI 기반 CRM솔루션) ▲비크코퍼레이션(스타일링 공유형 리워드 커머스)은 개별 회사 제품과 서비스,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휴앤쇼핑과 협력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中企 인력양성 지원 등 원전 생태계 복원 앞장”

강석진 이사장, 원전기업 삼흥기계 현장 방문 “소형원자로 개발 위한 설비투자 확대 계획”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기업 원전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현장으로 갔다.

중진공은 강석진 이사장이 3일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핵융합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삼흥기계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발전용량이 300MW급 정도의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

지난 30년 간 원전산업을 영위해온 삼흥기계는 2014년 창원 진북면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3일 경남 창원 소재 삼흥기계를 방문해 기업 소개를 듣고 있다. /중진공

각종 원전 부품 및 가공설비 제조인력으로 90여명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원자로 및 핵융합설비 제작이 가능한 자체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KEPIC(전력산업기

술기준), ASME(원자력제조인증) 등 국내외 원자력 품질보증 인증을 취득해 원자력 생산품과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에 공을 들였다.

김홍범 삼흥기계 대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소형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진공과 같은 기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정부의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정책방향에 맞춰 지원사업을 다각화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남지역 소재 원전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과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제작결합시정공고(재통지)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 개요
 - 주요대상: 주노, 아폴로, 루키 및 페르난도 일부 차량에서 경음기의 경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제53조(경음기)에서 제시한 90대시벨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합이 확인되어 제작결합시정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 결합 대상 및 대상 기간

차량	형식	제작기간	대상대수		
			판매	미판매	계
주노	S11	2020.06.22 ~ 2021.02.04	352대	256대	608대
아폴로	X1	2020.06.22 ~ 2022.04.13	41대	150대	191대
루키	S4	2021.02.04	-	10대	10대
페르난도	S5	2021.02.04	-	2대	2대
계			393대	418대	811대
- 제작결합 내용
 - 결합이 있는 구조 장치: 전기장치(경음기)
 - 원인: 경적시 경음기의 최소화기 차량 안전기준 제53조(경음기) 기준 부적합
- 제작결합 미시행 시 영향
 - 경음기 조작 시 최소화기 미달로 타 차량 및 보행자가 위험 경고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결합 시정기간, 장소 및 문의처
 - 시정기간: 2023.08.30일부터 원로 시까지
 - 시정장소: ㈜오트스틸 본사 및 서비스센터
 - 시정관련 문의처: 고객센터(062-975-7280)
 - 시정방법: 개선된 부품 교체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하여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 보상 대상기간: 2021.03.11부터
 - 보상 신청장소: ㈜오트스틸 고객센터
 - 보상 신청연락처: 고객센터(062-975-7280)
 - ㈜오트스틸 귀책 사유로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을 예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작결합 시정 비용부담 방법: 대상차량 전량 무상수리

OTOSI

경기도 안성시 동문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대입 523 호 TEL 031-478-3225/FAX 0505-265-4582

중소유통센터, 인천공항에 ‘판판면세점’ 3곳 더 연다

입점 희망 中企, 홈페이지 통해 신청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새로 선정됐다.

3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전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 ‘판판면세점’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021년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1%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법규 수행 능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정된 면세 운영 사업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판판면세점.

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면세점 3곳을 추가로 운영하게 된다. 기존 3곳을 더하면 총 6곳(제1여객터미널 2곳, 제2여객터미널 4곳)에 달한다.

‘판판면세점’은 향후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올해 11월 매장을 열 계획이다.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판판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이달 중 시작한다. /김승호 기자

카카오게임즈, ‘가디언 테일즈’ 4주년 업데이트 사전예약 시작

카카오게임즈가 ‘가디언 테일즈’ 업데이트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역할 수행 게임(RPG)인 ‘가디언 테일즈’의 4주년을 기념해 업데이트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사전등록에 참여해 업데이트를 완료한 이용자 전원에게 3000점이 지급된다. 점은 가디언 테일즈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화폐 단위다.

아울러 4주년 업데이트에 맞춰 ‘마에스트라 미래공주’ 캐릭터 의상을 지급하고, 픽업 소환 및 선택 소환 최대 150회 제공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 공식 카페를 통해 사전등록 참여 인증을 남긴 이용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티셔츠 등 ‘4주년 굿즈’ 상품도 제공한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놀랄 만 큼 다 양 한 콘 텐 츠
볼 수 록 빠 저 드 는 초 고 화 질 지
몰 입 감 높 이 는 사 운 드 까 지

똑같은 품질!

우리 집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한 가격!

화질·음질UP | 합리적 가격 | 다양한OTT



TV를 즐기는 새로운 기준!

Hello tv Pro

헬로tv Pro 런칭기념

기본료 할인 EVENT 진행중!

※ 24년 7월 31일까지 가입 완료한 고객에게 해당됩니다.

1:1 실시간 상담톡
바로가기



상담문의 1855-1094

올해 'K-푸드+' 수출액, 62억1000만弗… 농식품 성과 견인

농식품, 47.7억弗… 6.7% 증가세
SNS서 매운 라면 챌린지로 입소문
中·美서 각각 누적수출액 1억弗 돌파
쌀가공식품, 41.4%로 최고 증가율

올해 상반기 이른바 'K-푸드+'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이 62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특히 농식품(K-푸드)이 47억7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농식품의 주요 수출대상지는 미국, 중국, 일본이다. 미국은 노동시장 안정 및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로 소비 지출이 견조하여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채널 입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지난 5월 싱가포르의 한 식품박람회장에 자리한 한국관의 모습 /농식품부

중국 내 소비심리가 전천후 회복되면서 지난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일본은 작년 최대 수출시장이었으나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감소해 3위 수출 시장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기타 권역별로는 유럽,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10% 이상

의 성장률을 보였다.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이다. 32.3% 증가한 5억9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을 기록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운맛 라면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이 퍼졌고,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수출이 가속화했다. 특히 K-라면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은 온라인 채

널 입점 및 대형마트 입점 확대로 6월 말 기준 누적수출액 1억 달러를 각각 돌파했다. 유럽으로의 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해 상반기 기준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이 수출됐다.

전년동기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쌀가공식품이다. 냉동김밥, 볶음밥, 떡볶이, 쌀음료, 막걸리 등을 포함하는 쌀가공식품은 상반기 1억

3000만 달러 상당이 수출돼 41.4%의 증가 폭을 나타냈다. 냉동김밥 등 가공밥은 글루텐프리 건강식·간편식으로 인기를 얻었고,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는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인 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물용의약품은 수출은 지난 5월 말까지 8.2% 성장했다. 특히, 백신은 파키스탄 및 알제리 등 신형시장에 제품 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농약 수출은 지난해(+103.2%)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지속하며 109.3% 성장했다. 브라질, 중국, 베트남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K-푸드+ 수출이 지속 성장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국내 수소버스 1000대 도달… “2030년까지 2만대 보급”

주행거리 500km, 급속충전 20분
통근·공항버스 등 전환수요 발굴
연내 액화수소충전소 40기 구축 목표

정부는 이번 주 내에 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소버스는 지난 2019년 6월 1호차가 경남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됐다. 환경부는 이달 첫째 주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전기버스에 비해 길다. 또 충전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버스 급속충전이 1시간인 데 반해 수소버



저상(시내)버스, 일렉시티 FCEV.

스 15~20분이면 된다.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 및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2018년 11월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고상(광역)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환경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발족해 수소버스 등 수소 상용차 보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왔다. 서울(7대), 광주(6대), 울산(3대), 창원(5대), 아산(4대), 서산(5대) 등 총 30대이다.

정부는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전국버스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해 왔다.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정책간담회(2023년 3월)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세미나(2024년 5월) 등이다.

또 기업 통근버스, 공항버스, 통학버스 등 다양한 수소버스 전환수요를 발굴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2023년 5월) ▲서울 수소 공항버스·시내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2023년 6월) ▲인천 수소 통학버스 전환 업무협약(2023년 7월)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올해 4월 17일) 준공을 비롯해 연내 액화수소충전소 40기 구축 등을 목표로 세웠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 대를 포함, 수소차 3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 및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지자체 등 모두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쿠팡, 배송위탁 2만여명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 해

근로복지공, 539개소 대상 전수조사
누락보험료 47.3억, 과태료 2.9억 부과

쿠팡 물류전문 자회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등 최소 2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 등 총 539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5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공단은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

근 3년간 신고 내역과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약 5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택배영업점 90개소 소속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총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의 사회보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 산재·고용보험 중복 미신고자로 실제 미신고 인원은 최소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해당 인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한 뒤,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누락보험료와 과태료는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부가 징수하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공단 관계자는 “쿠팡CLS와 CJ대한통운 등 다른 물류회사의 배송위탁 계약 사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를 병행했으나 사회보험 미신고 혐의는 드러나지 않아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업종에 대해 비슷 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고용서비스, ‘고용24’로 한 번에”

고용부-고용정보원, 앱 시범운영
지원자격 사전진단 등 이용 가능

앞으로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 앱을 지난 6월 19일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기간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고용24를 사용하면 한번의 로그인으

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앱으로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다.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레인부츠·제습기 등 할인... 농산물 물량 확보도 '이상무'

유통업계, 장마 마케팅

이마트 제습기 등 관련상품 할인
양파·단호박 등 작물 물량 확보

롯데·현대백 식중독 예방 총력
즉석섭취식품 판매기한 단축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 된 가운데 유통업체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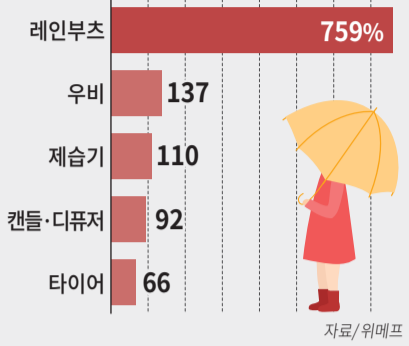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열흘 간의 장마가 예보된 가운데, 유통사들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마 기간 판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의 매출 개선을 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장마마케팅을 본격화하고 나서는가 하면,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해 상품출하 시기를 앞당겼다.

이 가운데 특히 레인부츠, 제습기, 우산 등 장마 관련 제품들의 매출이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백화점의 레인부츠 등 여름 신발의 장마기간 매출은 평상시보다 약 82%증가했다. 롯데온의 경우 5~6월 장화 매출이 '헌터' 등의 인기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양우산과 제습기 및 건조기는 각각 127%, 61% 증가했다.

장마 관련 제품 판매 증가율

작마 직전 대비 최근 열흘간(6월 21~30일)



자료/위메프

위메프도 최근 열흘간(6월 21~6월 30일) ▲레인부츠(759%) ▲우비(137%) ▲크룩스(75%) ▲슬리퍼(73%) 등 패션 잡화부터 ▲제습기(110%) ▲제습제(137%) 등 생활용품 거래액이 장마 직전(6월 11일~20일) 대비 크게 상승했다.

위메프는 '위메프데이'서 장마 특수 상품을 선보이는 등 장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지난달부터 55cm 비닐 우산 2종(퍼플·그린)을 편의점 업계 최저가인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장마시즌 외식 수요 감소에 따른 대형마트도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지난해 장마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 2022년 장마철에는 5% 증가했으며, 식료품 매출역시 소폭 증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후 여름철 대비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산동배수장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배수펌프 가동 점검 및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장마철 높은 습도로 인해 습기제거제 매출 역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마철 습기제거제 매출은 직전 월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2022년에는 61%나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유통업체들은 장마기간에 맞춰 상품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레인부츠 브랜드 헌터와 락피쉬 웨더웨어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이달 초까지 제습기와 섬유유연제 등 장마 관련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는 장마기간 피해에 대비해 상품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등 비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마

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장마기간 식중독 사고 방지에 더 각별히 신경쓰는 모습이다.

이마트는 장마 피해를 막기 위해 장기 저장이 가능한 양파, 단호박, 감자 등의 작물을 사전 기획해 이달 초까지 자체 농산물 가공·유통센터에 저장 작업을 진행한다. 감자의 경우 저장 시기를 전년 대비 10일 앞당겼으며, 파프리카 역시 7일분의 물량을 사전 확보했다. 또 수해를 입기 쉬운 수박의 경우 100톤(t) 이상의 물량을 비축했다.

백화점 업계는 식중독 예방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기존 '당일 판매'를 원

칙으로 하던 즉석섭취식품 판매 기한을 냉장 진열 상품은 7시간으로, 실온 진열 상품은 4시간 이내로 각각 단축했다. 회와 초밥·김밥·콩국물 등에 대해 본사 주관으로 불시 수거검사를 하고, 영업시간 전·후로도 위생 모니터링을 추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육회와 육회비빔밥,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전복장, 생갯잎김치, 콩국물 등 비가열 혹은 비살균 품목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현대백화점은 하절기 고위험 메뉴로 선정한 김밥·초밥·샌드위치·샐러드 등의 진열 판매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다.

한편, 농작물 관리 주무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동참한다. 장마철에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사과·복숭아 등이 낙과 피해를 입거나, 썩재나 수박 등의 시설 작물이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호우에 대비해 시설이나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난달 완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장맛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지기보다 전국을 훑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스텔라 아르투아, 최상의 생맥주 맛 선사”

전국 취급업장 '퍼펙트 서브' 실시
각도·거품 등 엄격한 품질관리 교육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가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생맥주 맛을 선사하기 위해 생맥주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퍼펙트 서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퍼펙트 서브는 스텔라 아르투아가 전 세계 어디서나 타협하지 않은 최고 품질과 스텔라 고유의 맛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기획한 글로벌 품질관리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데이비드 베컴과 함께 장인정신을 통해 우수한 맛과 차별화된 매력을 조명하는 '맛이 가치가 되는 순간'이란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올해 3월부터 전



스텔라 아르투아가 퍼펙트 서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오비맥주

국 500여 곳의 스텔라 생맥주 취급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업장들은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스텔라 생맥주 맛을 제공하고자 브랜드 전용 잔 챌리시에 맥주를 따르는 각도부터 거품을 건어내는 '스키밍' 작

업을 거쳐 고객에게 서빙 되는 순간까지의 과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 이수를 완료한 500여 곳의 업장은 캐치데이블 앱 내 '스텔라 인증 BEST 생맥주' 배지를 부여받게 되며, 7월 3일부터 캐치데이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퍼펙트 서브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으로 톱5 업장도 선정한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최근 500여 개의 스텔라 생맥주 판매 업장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퍼의 방문 평가 점수, 판매량, 매출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톱5 업장에는 브랜드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테니스대회 '윌블던 2024'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상위 점수를 얻은 톱5 업장은 이달 중 공개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제일제당, 1500개 상품 최대 75% ↓

비비고 왕교자 등 40% 할인

CJ제일제당은 공식몰 CJ더마켓 론칭 5주년을 기념해 '올 세일 페스타(이하 올세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올세페는 기존에 매달 진행하던 대규모 특가 프로모션 '더세페(더마켓 세일 페스타)'의 소비자 혜택을 더욱 넓힌 것으로 1500개 이상의 제품을 최대 75%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인기 제품인 '비비고 왕교자 1.05kg'과 여름 시즌 제품인 '비비고 열무김치 1.5kg', '동치미물냉면 2인분+함

흥비빔냉면 2인분' 등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고메 중화요리 세트(중화짬뽕·중화짜장·탕수육)는 43%, '비비고 순살 고등어구이 60g'은 3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햇반 210g×36개(1박스)'와 '비비고 한우사골곰탕 500g×18개입(1박스)'도 각각 46%, 60%까지 할인한다.

뿐만 아니라 '해찬들 나트륨을 줄인 100% 태양초 우리쌀 고추장 1kg', '해찬들 나트륨을 줄인 우리참쌀 고추장 1kg+나트륨을 줄인 가정식 집진장 1kg' 등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물가 잡기 '썸머 싸늘이' 확대

돼지고기·계란 등 특가

홈플러스가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지난주에 이어 '썸머 싸늘이'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AI 가격혁명' 할인전을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여름 필수 먹거리를 최적으로 선보이는 '썸머 싸늘이' 행사는 할인 품목을 다양화하고 혜택을 지난주 대비 크게 늘렸다. 5일부터 7일까지 '캐나다산 보맥돼 삼겹살·목심(100g)'을 1180원에, 4일부터 7일까지는 '특란(30구/1인 2판 한정)'을 5990원에 선보인다. '고기 싸늘이'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비캅스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육류를 특가에 준비했다. 마이홈플



모델이 3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썸머 싸늘이'와 'AI 가격혁명' 할인전 행사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한돈 1등급 이상 일품 삼겹살·목심(100g)'을 2392원에, 6일부터 7일까지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최빛나 기자

자주, 장마·폭염 번덕에 '우양산' 판매 ↑

지난달 매출 전월대비 60% 증가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번덕스러운 날씨에 '우양산'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양산은 자외선이 강한 날엔 양산으로, 비가 오는 날엔 우산으로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는 6월 우양산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7월부터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주 우양산'은 99g의 초경량·초소형 사이즈로 간편하게 가방에 넣고 다니며 날씨에 따라 사용하기 좋다. 강한 바람에도 쉽게 뒤집히지 않도록 특수 구조 살대를 적용했으며, 자외선 차단율도 85% 이상으로 야외 활동 시 피

부를 보호할 수 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자 장우산 매출도 크게 늘었다.

'경량 장우산'의 6월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52.4% 신장했다. 장우산이지만 무게가 250g의 경량이어서 여름철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으며 내구성도 뛰어나다. 블루, 베이지 등 세련된 색상으로 구성돼 있다.

우의도 같은 기간 매출이 47.7% 늘었다. 자주 우의는 비를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바람막이로도 활용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hy, 최저 수수료·정기배송으로 유통플랫폼 입지 다진다

지난달 배달앱 '노크' 서비스 개시 업계 최저 수수료율 5.8% 적용
프레시매니저로 배송 경쟁력 ↑
콜드체인 시스템, 신선식품 특화



배달앱 노크

2021년 사명변경과 함께 종합유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한 hy가 배달앱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유통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배달대행사 메쉬코리아를 인수한 후 첫 행보다.

hy는 지난달 배달앱 '노크(Knowk)'를 론칭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노크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활동을 지원하는 주문 중개 플랫폼이다. 이용 고객은 상점이 설정한 최소 주문 금액만 충족하면 배달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의 수수료율이 최소 6.8%에서 최대 12.5%인 것과 비교해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 5.8%를 적용하고 점주들에게 광고비와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 등 부담을 낮췄다.

고객 만족도를 기준으로 상점을 노출하며 평점은 배달 서비스와 음식을 분리해 운영한다. 아울러 가맹점 홍보 활동도 지원한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상점 방문 콘텐츠를 제작해 앱을 통해 노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강서구에 한해 운영중이며 합리적 운영 방식이 입소문을 타 지역 내 900개 상점이 입점을 마쳤다.

hy는 동네 정육점, 반찬가게 등 소상공인과 협업을 통해 신선식품, 비식품 영역까지 배송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지역 확대도 검토 중이다.



프레시 매니저

/hy

회사는 사업으로 축적한 데이터로 쿨 배송에 감성을 가진 프레시 매니저와 협업 모델 구축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크앱에 자사몰 '프레딤'을 연동해 주문 발생 시 프레시 매니저가 배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식이다.

hy는 방문판매를 하는 프레시 매니저와 자사몰 '프레딤' 등 자체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프레딤은 전국 영업점에서 활동중인 1만여명의 프레시 매니저를 중심으로 한 배송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중이다.

프레딤의 성장에는 정기배송 서비스

도 한 몫을 했다. hy 정기배송은 지정일과 배송주기를 선택하면 일정에 맞춰 프레시 매니저가 정해진 장소로 전달해 줘 편리하다. 실제로 첫 해 약 1700명으로 시작한 정기구독 고객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만3000명까지 늘어나며 69% 가량 급성장했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프레딤 멤버십 가입자 수도 지난해 11월 기준 4만1552명으로 전년 대비 74.3% 신장했다.

배송품질과 합리적인 가격도 강점이다. hy는 출고부터 냉장카트에 이르기까지 배송 전 단계에 콜드체인 시스템

을 적용해 신선함이 중요한 달걀 등 신선식품 배송에 특화되어 있다.

물류센터는 충남 논산, 경기 용인 신갈, 경남 양산, 광주, 대구 등 전국 다섯 곳에 위치해 있다. hy는 배송망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논산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이곳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hy는 라스트마일 배송 강자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지난해 4월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운영사인 메쉬코리아를 인수했다. 총 인수대금은 800억원으로 메쉬코리아 지분의 66.7%를 확보하고 최대 주주에 올랐다.

hy 관계자는 "노크는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닌 hy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모걸 상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거래와 부대정보를 디지털화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무료배달 등으로 배달업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만큼 후발주자인 hy가 배달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

나라셀라-레디큐, 와인픽스 프로모션 진행

'7월의 레드큐' 행사상품 구매 시 레디큐 스틱 레이드 1박스 증정 SNS 댓글 이벤트... 경품 제공



나라셀라가 7월 한달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나라셀라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맛있는 숙취 해소제 레디큐와 협업해 와인픽스에서 7월 한달 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오프라인 프로모션은 와인픽스 전지점에서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7월의 레드큐' 행사 상품 2명 이상 구매시 레디큐 스틱 레이드 1박스(10개입)를 증정한다.

행사 상품은 ▲나해 리슬링 ▲쉴드 샤토네이 ▲돈나푸가타 안펠리아 ▲케이머스 코넨드럼 레드 ▲도마네 고벨스 버그 리슬링 ▲칼 에이베스 위르찌거 뷔르츠가르텐 카비넷 ▲아타 랑기 크림 스페인 피노 누아 ▲삼페인 드 수자 슈멩 더

온라인 프로모션은 간단하게 SNS 댓글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16일까지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내 와픽퀴즈 이벤트에서 참여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1등은 매거진 NARA와 디캔터(1명), 2등은 레디큐 10개입 10박스(5명), 3등은 돈나푸가타 올리브유(10명)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한편 나라셀라는 와인 라이브러리 콘셉트의 다양한 주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와인픽스 청담점을 비롯해 성수점, 송파점, 을지로점, 여의도점, 압구정현대점, 분당정자점, 이케아광명점, 동탄점, 부산센텀점, 광주봉선점 등 11개 와인픽스 매장과 와인애호가들을 위한 프리미엄 와인 셀러 보관 서비스와 다양한 할인 및 시음행사 등을 제공하는 나라셀라 리저브 1개 매장을 직영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LG화학, '골관절염 치료제' 中 시장 진출

시노비안, 1회 투여 제형 강점

LG화학이 중국 시장에서 의약품 사업을 본격화한다.

LG화학은 중국 파트너사 이판제약이 LG화학의 1회 요법 골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중국 현지명칭: 히루안 윈)'을 중국 시장에서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이 지난 2014년에 출시한 시노비안은 히알루론산을 교차 결합시킨 성분으로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쓰인다. 1회 투여만으로 기존 다회 투여 제형과 유사한 치료효과를 내는 특징을 갖췄다는 것이 LG화학 측의 설명이다.

LG화학에 따르면 중국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시노비안은 무릎 통증 감소 및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또 시노비

안 안전성은 대조약인 다회 제형 히알루론산 주사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노비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LG화학은 중국 이판제약과 사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판제약은 지난 2019년 8월 중국 현지에서 임상 3상을 시작해 2021년 12월 판매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2023년 4월 판매허가를 획득하고, 약 1년 동안 중국 정부와 협상해 국가 의약품 보험 목록(NRDL)에 시노비안을 등재시켰다.

LG화학이 중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료 선호도 조사에서 설문 참여자 중 87%가 원거리 환자 비율, 감염 노출 환경 최소화 등을 고려할 때 1회 투여 제형은 이점이 있어 사용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CJ바사-바타비아, 세계 석학 '과학자문단' 운영

대학교수진·AI 전문가로 구성

CJ바이오사이언스와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이하 바타비아)가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제약·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기업 CJ바이오사이언스와 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바타비아가 과학자문단(SAB)을 각각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CJ바이오사이언스가 구성한 SAB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국내·외 유수대학 교수진 및 AI 전문가로 이루어졌다. 초대 단장으로는

서울대 의대 김연수 교수가 선정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약 임상 전략 수립에 참여한 서울대 장인진 교수도 합류했다.

해외 SAB위원으로는 하버드대의대 암 분야 의과학자 윌리엄 쉐러스 교수를 영입했다.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염증성장질환 작용기전 연구의 권위자인 웨일 코넬 의대의 렌디 롱맨 교수, 글로벌 기업 머크·노바티스·구글 등에서 자문역할을 한 신약개발 AI 전문가 조셉 레허 박사도 영입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SAB는 ▲주력 파이프라인 CJRB-101의 글로벌 임상 전략 수립 ▲후속 파이프라인 R&D 자

문 ▲빅파마와의 네트워킹 및 우수 인재 추천 ▲혁신기술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등 신약개발 전반에 걸친 주요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바타비아도 SAB로 '메사추세츠 주립대 의대'의 광핑 가오 박사를 새로 영입했다. 가오 박사는 30년 이상 바이러스 벡터 분야 등의 연구를 해왔으며,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을 10건 이상 수행한 유전자치료제 분야 세계적 권위자다. 기존 바타비아 SAB에는 미 생물 의학첨단연구개발국(BARDA) 자문위원으로 백신 분야 최고 전문성을 보유한 키스 웰스 박사가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웅제약, 혁신형 제약기업 5회 연속 인증

오는 2027년까지 15년간 위상 유지

대웅제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첫 선정된 이후 5회 연속 인증에 성공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간은 3년으로, 대웅제약은 오는 2027년까지 15년 간 '혁신형 제약기업' 위상을 유지하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R&D 실적, 해외 진출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들을 보건복지부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

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R&D 과제 참여 시 가점, 세액 공제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대웅제약의 R&D 투자 비중은 2018년 13.0%(1212억원) 대비 3.9%p 증가한 약 16.9%(2031억원)로, 매출 기준 최상위권의 5대 전통 제약사 중 가장 높았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2년 국산 신약 34호 '핵스클루'에 이어 지난해 국산 신약 36호 '엔블로'를 개발 및 출시하는 데 성공했다.

핵스클루는 국내 출시 2년 차에 위식도역류질환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5월 기준 누적 매출 1020억원을 기록했다. /이세경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BNK금융그룹-기보, 데이터 산업 지원 MOU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데이터 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왼쪽부터), 박성욱 BNK금융지주 그룹미래디지털혁신부부장,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



현대차정몽구재단, '온소 퓨처스 컬리지' 출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5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길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대학생을 위한 '온소 퓨처스 컬리지'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 강연뿐 아니라, 기업탐방, 스타트업 멘토링, 워크숍, 1박2일 역량강화 캠프, 팀 프로젝트 발표 등 협업과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



삼양그룹, 대학생 서포터즈 '삼양씨즈' 8기 발대식

삼양그룹은 지난 2일 판교 디스커버리센터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삼양씨즈' 8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삼양씨즈는 삼양그룹의 대표적인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씨앗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씨드(Seed)에서 이름을 따와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듯 잠재력을 지닌 대학생들이 크게 성장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삼양그룹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체계구축' 컨설팅

G마켓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체계구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컨설팅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G마켓, 옥션의 입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해 자발적 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하는 내용이다. /G마켓



국민대, '제2회 안중근의사찾기 학술대회' 개최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상해외국어대학교 중일한학연구소, 안중근의사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와 지난달 29일 상해외국어대학교 송지양캠퍼스에서 '제2회 안중근의사찾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안중근 정신 선양을 통한 한중관계 강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류했다. /국민대

오뚜기, 안양에 기념관 착공... "배움·공감의 장 활용"

함태호 명예회장 정신 계승
2028년 1월 정식개관 목표

종합식품회사 오뚜기가 3일 '오뚜기 기념관(가칭)'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안양시 오뚜기 안양공장 내 오뚜기 기념관 건립부지에서 열린 착공식 행사에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 황성만 오뚜기 사장,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신형철 교수(신스랩건축), 이민재 미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참석했다.

'오뚜기 기념관'은 오뚜기의 창립 제품인 카레가 생산되던 오뚜기 안양공장 카레동 부지에 건립되며 규모는 지하 2개층, 지상 5개층으로, 부지 2만4456㎡, 연면적 2만495㎡ 규모다.

오뚜기 창업주 품림 함태호 명예회장의 생애와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공간과 한국 근현대 식문화를 이끌어온 오뚜기의 역사를 소개하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황성만 오뚜기 사장(왼쪽 네번째부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일 오뚜기 기념관 증축공사 착공식에서 삼을 뜨고 있다. /오뚜기

공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오뚜기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오뚜기 브랜드를 전 세대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뚜기 기념관은 시범 운영을 거쳐 품림 함태호 명예회장 서거 10주년인 2026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

관 후 2028년 1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양시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 기념관은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해 온 오뚜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

보존하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숭고한 정신을 알려 계승 발전시키고자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며 "안양시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식품에 대한 배움과 공감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전국 산림휴양시설 알루미늄캔 재활용

산림청·포스코엔텍 업무협약
신영수 대표 "ESG 경영 확대"

CJ대한통운이 지난해부터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진행해 온 알루미늄캔 자원순환사업을 산림청 산하 산림휴양시설로 확대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일 서울 종로 본사에서 산림청, 포스코엔텍과 '산림휴양·복지시설 자원순환 및 ESG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산림휴양시설에서 배출하는 알루미늄캔을 CJ대한통운의 배송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



지난 1일 서울 종로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산림휴양·복지시설 자원순환 및 ESG경영 업무협약' 행사에서 (왼쪽부터)송치영 포스코엔텍 대표, 남성현 산림청장,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하는 것이 골자다.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전국 숲 체원 및 자연휴양림 19곳에서 배출된 알루미늄캔을 수거해 포스코엔

텍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포스코엔텍은 회수한 알루미늄캔을 철강원료로 재활용하고, 알루미늄캔 선별 작업에 장애인 인력을 고

용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산림청은 효율적 수거를 위한 현장 관리와 행정지원,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CJ대한통운과 포스코엔텍은 재활용 캔 수거량만큼 산림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CJ대한통운 신영수 대표는 "국내 1위 물류기업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순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친환경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물류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한 CJ대한통운만의 ESG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

신민경 셀타스케어 대표 '대상'

인공지능(AI) 기반의 의약품 주기 부작용 감시 자동화 플랫폼을 만든 셀타스케어 신민경 대표가 '2024년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샘샘테라퓨틱스김정은 대표, 이엑스헬스케어 이용희 대표에게 돌아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3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S1)에서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여성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여성 (예비)창업자 대회다. 총 1003개팀이 참가해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대회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총 40개팀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포상과 함께 후속지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이 3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1에서 열린 2024년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신민경 셀타스케어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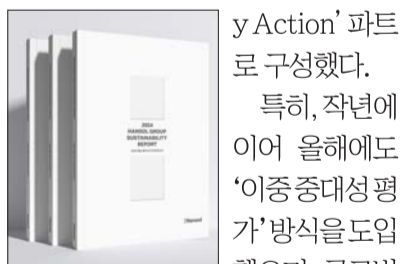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올해로 25회차를 맞은 여성창업경진대회는 미래를 대표하는 기술 기반 여성 창업기업 육성의 산실로 자리를 잡았다"며 "여성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솔그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국제표준 GRI에 맞춰 제작

한솔그룹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가 그룹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주요 성과를 담은 '2024년 한솔그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사진)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맞춰 제작했다.

한솔홀딩스를 포함한 계열사 11곳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현황 및 핵심 이슈에 대한 성과를 상세히 풀어낸 'Sustainability Essentials' 파트와 ESG 경영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담은 'Sustainability



'y Action' 파트로 구성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중중대성평가' 방식을 도입했으며,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공시 및 평가 기준에 따라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4년 한솔그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한솔홀딩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외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영문판도 8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부음

▲이단오씨 별세, 김상훈(새전북신문 기자)씨 외조모상=3일 오전 7시, 전북 고창 고인동장례식장 201호, 발인 5일 오전 8시30분. 063-562-3233
▲임맹기씨 별세, 임현우·태훈(군인권

센터 소장)·현진씨 부친상, 김주연·박상희씨 시부상, 임지원·지민씨 조부상 = 3일, 경북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2층 VIP실, 발인 5일 오전 9시30분. 054-634-4444

딥페이크 대책 하루빨리 나와야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해외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딥페이크' 등 AI의 부정적 사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미 다양한 피해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I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 테크 기업과 각국 정부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도 커지자 최근 유튜브는 AI규제방침을 발표했다.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음성 데이터를 모방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했다. 생성형 AI 콘텐츠에 영향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성년자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을 상황인자, 또는 사망한 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곤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이런 삭제 결정을 유튜브의 자의적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유튜브 측은 콘텐츠 삭제 요청 접수 시 여러 요인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 특정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패러디 또는 풍자로 대중 이익을 위한 것인지, 폭력, 정치인 지지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겼는지도 고려한다.

이런 방침은 유튜브 자의적인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AI의 부정적 사용에 대한 대책의 시작이란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유튜브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합류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의 경우 딥페이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사진에 대한 라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메타 AI에서 만든 AI 이미지에 라벨을 붙였으나 지난 5월부터 모든 게시물로 확대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22대에서도 AI와 관련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정점식 의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안철수 의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법안은 AI 산업의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AI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법률도 필요하다.

지금 국회는 22대 회기를 시작했지만 고(故)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특검 등의 이슈로 사실상 '시동'조차 못 걸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이슈가 온통 국회를 뒤덮고 있다보니 다른 민생 법안이나 새로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논의는 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와 주요 테크 기업들은 AI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기술개발이야 민간 영역이라 치더라도 규제책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소름끼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끊임없이 학습을 하면서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특검을 이유로, 정쟁을 이유로 AI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정치부장 yhi@metroseoul.co.kr

해병대원 1주기 다가오는데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경제부)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2003년생 해병대원이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보도 이후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수괴죄로 입건됐다.

야당은 전반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풀기 위해 21대 국회 막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

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안을 재발의했으나,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정국이 난맥상에 빠져있다.

전날(2일)에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법이 여야 조율 없이 처리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이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안을 놓고 정국이 멈춰서면서 민생 경제 법안도 처리가 늦춰진다.

보다 못한 정치권이 특검법안에서의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대화를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법안의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몫을 양보할테니, 여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논의하자고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

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힘이 가장 반대한 조항이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온다면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해병대원 사건 1주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난의 길을 자원했던 해병의 역술한 죽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여야가 같을 것이다. 지금의 특검법 논의로는 여야의 극한 대치만 불러올 뿐이다. 해병대원 1주기 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공개하길 기대해본다. /pth7285@

오늘의 운세 7월 4일 (금 5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 48년생 처음이 중요하나 끝맺음도 잘해야 한다. 60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 72년생 두드러진 열릴 문이니 성의껏 두드려라. 84년생 구슬이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니.

소 37년생 이상의 허황된 꿈이 지출을 부른다. 49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61년생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나 기다려보라. 73년생 붉은색과 함께 숫자 7이 행운을 준다. 85년생 지금 당장 못하니 마음이 급해진다.

호랑이 38년생 재산 조사가 끝났으니 분배해주자. 50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한가하게 뱃놀 이한다. 62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74년생 직장에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86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살자.

토끼 39년생 썩지 않으려면 물은 흘러 보내야 한다. 51년생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63년생 재능이 가득해도 올바른 처신이 구슬수를 예방한다. 75년생 공부할수록 세 상살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 87년생 늘 먹던 밥도 신물이 날 때가 있다.

말 40년생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52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6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매사에 자중. 76년생 배가 고프면 콩 한 쪽 을 가지고도 다투게 된다. 88년생 거스를 없이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뱀 41년생 조금씩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53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옷듯이 일이 풀린다. 65년생 정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 77년생 바라던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 가 높아진다. 89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이르다.

닭 42년생 관계를 유지할 때 나의 잣대로만 하지 말자. 54년생 마음속에 담고 있는 뜻이 곧 말이 아니겠는가. 66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데. 78년생 한밤중에 비단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90년생 마음이 상쾌하니 놀음도 많다.

양 43년생 불만이 있어도 인내. 55년생 과대포장은 실망이 따른다. 67년생 몸이 머무는 장소는 외부가 아니라 집이거늘. 79년생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화합을 이루게 된다. 91년생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는데.

원숭이 44년생 주는 것에 대해 이기적인 마음으로 실수를 한다. 56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 하니 영업이득이. 68년생 오늘은 운세가 향상되니 무슨 일든 참여. 80년생 돌다리 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92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라 했다.

닭 45년생 불평 마라 절이 싫으면 종이 때려내면 된다. 57년생 오늘이 마지막 것처럼 최 선을. 69년생 외출할 때 음주 조심. 81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다 보면 길이 보임. 93년생 교만함으로 뱀처럼 빛을 감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개 46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58년생 영업 특성을 알면 실수가 줄 고 이득이 창출된다. 70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82년생 술선수배하고 모범이 된다는 것은 책임. 94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돼지 47년생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라. 59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 으니 걱정이다. 71년생 원망하고 닳고 싶었으나 공부하라. 83년생 무엇보다 정보 최우선 시대이니 움직여라. 95년생 목청 높여 울려대면 슬픔이 오게 되니.

김상회의四季 걱정되는 후천갑자

과학과 통신의 발전이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을 지나쳐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인간이 과학 문명 도구의 노예가 됨은 물론이요. 인간 존립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불안한 확신은 벌써 일 년도 전에 일론 머스크의 '인간 뇌 칩 이식' 실험이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기 이전부터도 우려하던 점이지만 이는 비단 필자의 걱정은 아닐 것이다. 인간의 뇌에 칩이 달린 장치를 이식해 인간과 컴퓨터의 연결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해온 '뉴럴링크(Neuralink)'는 이 같은 기술이 비만·자폐증·우울증·정신분열증을 포함한 다양한 상태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상상하던 일이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 중 '뉴럴링크'는 그 상상을 실제 인간의 현실로 가져온 것이다. 질병 치료와 같은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을 순진하게 믿어야 할까? 물론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 사고로 온몸이 부자유스럽거나 근육이 굳는 몸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의료적 목적도 기대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불순한 조종과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될 걱정도 배제할 수 없다. 인간 세는 합리적 이성을 지닌 사람들만의 세계가 아닌 까닭이다.

명리학 관점에서 보는 우주의 질서상 현재는 후천 세계가 발전되고 진행되는 초기에 있다. 기존의 질서와 상하 관계가 뒤집히는 시대다. 물질이 정신의 가치보다 한참이나 우위에 있는 세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뇌 칩 이식이 사람을 돕는 기술의 목적으로 출발했을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어두운 탐욕과 광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마의 표식이 되지 않기를, 후천 갑자의 시대가 종말로 가는 상징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6	2	7	2	8	9	8	7
2	7	8	9	6	1	8	9		
9	8	7	9	1	6	2	2		
1	2	9	9	6	8	7	2	8	
8	9	2	9	1	7	8	6	2	
7	6	8	2	8	2	9	9	1	
6	7	1	8	2	9	2	9	8	
8	9	6	7	2	2	1	9		
2	9	2	1	8	9	8	7	6	

1	9	6	7	2	2	8	9	8	8
2	8	2	6	8	9	7	1	9	
9	7	8	9	1	8	2	2	6	
9	8	7	2	9	1	2	6	8	
8	6	2	8	9	7	1	2	9	
2	9	1	2	8	6	9	8	7	
8	1	9	8	7	2	6	9	2	
6	2	9	9	2	8	8	7	1	
7	2	8	1	6	9	8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6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개발추진단 신설했다. /해남군

해남군, 농촌개발추진단 신설

해남군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등 농촌 생활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 10명의 인원으로, 농촌공간개발팀, 농촌활력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병길 농촌개발추진단장은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이라는 장기적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사천시

“5년내 50억 투자유치기금 확보”

사천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50억원 규모의 사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6월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매년 10억원 규모로 2028년까지 50억원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기업 투자 증가 대비 각종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된 기금으로는 사천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각종 보조금 지급, 용지매입비 지원, 성과급 지급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산청군

고독사 위험가구 반려로봇 보급

산청군은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에 반려로봇을 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반려로봇은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 말벗, 영상 통화, 복약 관리 등이 가능하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 사용자에게 이상한 점이 감지되거나 사용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응급 호출을 보낼 수 있다.

군은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 환경 개선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독사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독사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세계 살기 좋은 도시지수’ 아시아 6위

최근 도시 브랜드 가치 급상승 英 EIU 종합평가 87점 획득 글로벌 허브 등 가치 인정받아

부산시는 영국의 대표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터내셔널 유닛(EIU)이 발표한 ‘2024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The Global Liveability Index 2024)’ 보고서에서 부산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6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산하 경제 분석 기관인 EIU는 매년 세계 주요 도시의 생활 여건과 살기 좋은 정도를 평가하는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안정성 ▲의료 ▲문화와 환경 ▲교육 ▲기반시설 총 5개 분야로, EIU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6일 2024년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종합평가에서 87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80점대 후반의 점수를 얻는 쾌거를 이뤘다. 순위도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6위를 사수했다.

이는 부산이 지난해 종합평가에서 80점대 후반의 점수로 ‘퀵템 점프’하게 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 올해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은 2022년 종합평가에서만 해도 70점대를 받았다.

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다

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도시 브랜드 매력과 가치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으면서, 세계 유수의 도시 브랜드 평가 지수들이 부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은 최근 급부상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각종 세계 도시 브랜드 평가 지수에서 연이어 선전하고 있다.

부산은 최근 세계적 두뇌 집단인 지엔(Z/YEN)의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121개 금융 도시 가운데 27위, 세계지능형도시 지수에서 79개 지능형 도시 가운데 14위에 오르며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세계적 자문 기관인 레저넌스 컨설팅시(Resonance Consultan

cy)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최고의 도시’ 보고서에도 최초 진입해 ‘한국의 마이애미’라는 찬사를 받으며 270개 도시 가운데 67위에 오른 바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결과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일으킨 혁신의 파동이 구체적 성과로 드러난 것”이라며 “부산은 천혜의 자연과 따뜻한 정을 가진, 이미 그 자체로 살기 좋은 도시다. 부산이 갖고 있는 도시 브랜드의 매력과 가치를 전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대구 2·28자유광장 표지물

대구시, ‘2·28자유광장’ 조성

2·28기념탑 인근 광장 표지물 제작 홍준표 시장 “새로운 대구 명소 기대”

대구시는 달서구 두류공원 중앙부에 위치한 2·28기념탑 인근 광장을 ‘2·28자유광장’으로 명명하고 3일 오전 광장 입구에 설치한 표지물 제작 행사를 가졌다.

2·28민주운동은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주도해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마산3·15의거와 4·19혁명 도화선이 됐으며 2018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2·28자유광장 표지물은 길이 14.5m, 높이 6m의 짙은 검은빛 계열의 화강석으로 장엄하고 무게감을 느낄 수 있으며,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적용해 2·28정신과 한국적 이미지를 연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 2·28자유광장 일대는 2·28기념탑과 함께 자유·민주·정의의 외친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가장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51억 융자 지원

15일부터 융자신청 접수

밀양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5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

자를 지원하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에는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 1년 치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구미시,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선정

방위산업용 반도체 국산화 추진

경북 구미시가 반도체 소부장 생산 거점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3일 구미시에 따르면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소재 자립화와 국산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국방용 반도체)는 국방 분야 무기체계, 전자전 등 관련 산업의 첨단화 활용 용도에 최적화·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의미한다.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반도체 탑재 고신뢰성과 고성능이 필요하고 방위산업의 특성상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국산화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2028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산업기술원 주관으로 각 분야의 역량 있는 기관들과 함께 기반 구축, 기술 서비스, 사업화 지원, 보급확산 등 국방 반도체 부품의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사진)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DGIST 공학전문대학원 구미캠퍼스에 이어 국방 반도체까지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반도체로 대표되는 구미 미래 5대 산업 육성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경북)=김상복 기자

광주시, AI 기반 임상실증 플랫폼 만든다

산자부 바이오기술개발 사업 선정

광주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대상 임상실증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총 118억원(국비 95억원)을 투입, 퇴행성 뇌질환 대상 임상실증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조선대 산학협력단(가드코호트연구단)이 구축한 약 2만명의 아시아 최대 규모 지역기반 멀티 코호트를 활용해 ▲임상실증 맞춤형 대상자 선별 인공지능 플랫폼 ▲원격

임상시험 모니터링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가상·합성 대조군 모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등을 활용한 노인성 질환의 조기진단·예방을 이끌고 지역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등 관련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최초의 노인성질환 대상 임상실증 플랫폼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광주가 인공지능 기반 임상실증 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바이든, 오바마와 통화...선거 조언 들었다 /사진 뉴시스
▲ 美 국토안보부, 전세기 띄워 중국인 밀입국자 추방



▲ “유럽 13개국서 ‘우크라이나 협상으로 종결’ 전망 주류”
▲ “EU, 中 알리·테무·위인 상대로 수입 관세 부과 계획” /사진 뉴시스

▲ 프랑스 총선 후반전 앞두고 2·3위 단 일화...후보 218명 사퇴
▲ 日정부, 무인 화물운반 ‘자동 물류 도로’ 검토



유통업계
장마 마케팅
농산물 확보도 OK
니



Life

hy
유통플랫폼
입지 확대
L2



“6월 모평, 이과생 고득점자 많아 무전공선발·정시 모두 유리할 것”

종로학원, 3684명 표본 조사 수학 1등급 중 98.6% ‘이과생’ 선택과목 간 점수차 최대 7점

지난달 치러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서 선택과목 유불리가 재현됐다. ‘미적분’ ‘기하’ 등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더 높게 나오면서 여전히 이과생이 고득점을 받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종로학원이 6월 모평에 응시해 개별 성적을 통지받은 368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선택과목 간 점수 차이가 일부 과목에서 최대 7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미적분 152점 ▲기하 151점 ▲확률과 통계 145점이다. 선택과목에서 같은 만점을 받더라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7점 높은 표준점수를 받게 된 셈이다. 미적분은 주로 이과생이 선택하고, 확률과 통계는 문과생이 선호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

국어에서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언어와 매체는 148점이고, 화법과 작문은 145점으로 3점가량 차이 났다.

종로학원은 이번 모평에서 이과 학생이 문과 학생보다 고득점자 수가 훨씬 많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과생이 주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수학 1등급 학생 중 이과 학생이 98.6%로 추정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사는 “여전히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유리한 구도”라며

“특히 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는 무전공 선발 유형 I 과 정시 선발에서 이과생이 매우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종로학원이 6월 모평을 토대로 예측한 의대 지원 가능 최저선은 표준점수 기준 414점, 수도권 소재 최저선은 422점이다. 서울대 의예과 예측 점수는 429점, 연세대 의예과와 고려대 의대는 각각 428점, 426점이다.

서울권 대학 진입 가능점수는 인문 계열 340점, 자연계열 337점으로 예측됐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구직 단념자 늘어... 청년수당 손질해야

‘심 인구’ 증가에 청년수당 여전히 유효 실질적 육구 기반 호혜적 정책 필요

서울시가 미취업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청년수당’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 단념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와 개선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2020년 늘었다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이는 노동시장 일자리 감소와 청년의 일자리 공급, 노동시장 수요의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대 실업률

은 2016년 9.8%에서 2022년 6.4%로, 30대 실업률은 3.1%에서 2.7%로 각각 3.4%포인트, 0.4%포인트 줄었다. 동기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0대는 24만5000명에서 36만2000명으로, 30대는 17만6000명에서 26만명으로 각각 47.76%, 47.73% 폭증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구직 활동, 취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청년이 직면하는 이행기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연구진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유사 정책이 많아짐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일부 소수 청년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해 청년의 실질적 육구를 기반으로 한 호혜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북한산 앞 미아동 일대, 2500세대 들어선다

고도지구 면적 줄이고 최고높이 완화 구릉지 특성 활용한 주거유형 도입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최고 25층, 2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상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작년 6월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시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을 줄이고 최고 높이를 완화하면서 노후 주거지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가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평균 45m(15층)로 풀렸다. 용적률은 240% 내외다.

북한산의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내 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 최고 25층으로 계획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였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kt@

안심소득 출범 2주년... 성과·방향성 논의

서울시, 소득보장제도 주제 토론회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한국사회보장학회와 이달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미

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로 설계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교통혁명... ‘30분 교통망’ 만든다

2030년까지 교통 선진도시로 도약 서울, 파주시내 전 지역 30분 이내로

2030년이면 파주시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파주에서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고, 파주시 전 지역이 30분 이내 통행권에 포함되며, 교통사고도 3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환승센터 건설 등으로 대중교통과 교통 플랫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파주시는 민선8기 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일 오후 금촌다목적체육관에서 ‘2030 파주교통혁명이 시작됩니다’라는 표어로 「파주시 교통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더 가까운 파주, 100만 파주 도약”을 비전으로 하여 ▲더 빨라집니다(서울까지 30분) ▲더 가까워집니다(파주시내 30분) ▲더 안전해집니다(교통사고 30% 절감) ▲더 편리해집니다(교통플랫폼 혁신)라는 세부 목표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 선진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선포한 파주시 교통비전은 파주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100만 도시 파주의 기틀을 다지고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6 | 해질 / 19:57

7월 4일 (木)
음력 : 5월 29일

수도권 날씨
22~2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1/27, 동두천 21/27, 가평 21/28, 파주 21/27, 서울 22/28, 양평 22/29, 인천 22/25, 수원 23/27, 용인 23/27, 평택 22/30, 백령도 20/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홍민 치고도 교체... ‘수비 실수’ 김도영 과감하게 뺀 KIA /사진 뉴스
▲황성빈·장현식·송성문·박지환, 올스타전 누빈다...출전 선수 확정

▲김하성, 10경기 연속 안타 불발...텍사스 전 3타수 무안타
▲메시 빠진 아르헨티나 파리올림픽 18명 발표



▲유로 8강 대진 확정...스페인-독일, 포르투갈-프랑스 빅매치
▲서울 3연승 이끈 한승규 K리그1 20라운드 MVP /사진 뉴스

SAMSUNG

안심케어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라이프

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시는 부모님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 게 자식 마음이죠

시라이프를 부모님 댁에 놔드려 보세요

잘 일어나셨는지, 약은 잘 드셨는지 늘 알 수 있고
위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죠

청소, 세탁, 설거지도 다시에게 맡겨두고
전기요금 걱정없이 늘 시원하게 지내시도록

시와 함께 늘 곁에 있는 듯
부모님을 세심히 살펴 드리세요



'세상 편한 시라이프' 페스티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라이프를
특별한 혜택과 함께 시작하세요
2024.05.01~07.31

세상에 없던
시라이프

*패밀리케어: TV, 냉장고, 정수기 활동감지 알림은 연내 지원 예정 *복약 알림: 조명, 스피커, 뮤직프레임 등 해당 기능 지원 제품에 한함 *시기능은 일부 모델에 한함 *소비자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임